

하나님 아버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날마다 왕성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6월 5일 (토) 제 1828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개척 교회보다 문 닫는 교회 더 많았다

CT, 라이프웨이 2019년 교회 개척/폐쇄율 상황과 향후 예측 보도

미국 교회는 더 적은 수의 교회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려운 2020년을 견뎌냈다. 라이프웨이(Lifeway Research)의 추정에 따르면 2019년에 약 3000개의 개신교 교회가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4500개의 개신교 교회가 문을 닫았다(Protestant Church Closures Outpace Openings in U.S.). 동 리서치는 미국 개신교 교회의 60%를 대표하는 37개 교단과 그룹의 회중 정보를 분석해 2019년 교회 개척 상황과 폐쇄 수를 찾아냈다.

현재 폐쇄 간격율은 라이프웨이의 이전 분석에서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2014년에는 약 4000개의 개신교 교회가 세워졌고 1년에 37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다시 말해서, 교회 폐쇄율이 이제는 개척율 보다 웃도는 상태로 접어들게 됐다는 사실이다(More Churches Closed than Opened in 2019. Then Came the Pandemic: Losses have denominations focused on church planting and revitalization, but it's been a challenge).

라이프웨이의 스캇 맥코넬(Scott McConnell)은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교단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존 교회를 되살리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유행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성장이 지체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재 활성화 해야 하는 실질적이고 증가하는 필요성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라고 말한다.



교회개척 전문가들은 새로운 교회의 감소가 예상됐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여전히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관심을 갖는 사역 중 하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개척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저를 놀라지 않게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라고 다니엘 임(Daniel Im, Planting Missional Churches의 공동 저자이자 앨버타 주 에드먼턴에 있는 Beulah Alliance Church의 담임목사)는 교회 개척이 둔화되는 이유를 말해 준다. "처음부터 교회를 시작하는 것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하고 후임자를 찾아야 하는 부머 목사들의 증

가와 함께요." 휘튼대학 빌리그래함센터의 에드 스테처에게 이 수치는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명백한 경종을 울린다. "교회개척이 둔화되고 있으며 폐쇄 횟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갈급하기에 복음이 답입니다." 여러 교회의 시작을 도왔고 교회개척에 관한 수많은 책을 저술한 스테처는 이러한 수치가 미국 전역에 확산되는 COVID-19 이전에 나왔다고 말한다. "확실히 전염병은 훨씬 더 도전적인 숫자를 보여줄 것이며, 비록 그 숫자가 조금이라도 더 큰 추세가 우려됩니다." 2019년에 시작된 3000개 교회 중 두 곳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컬럼비아의 비비드교회와

다. 우리는 2020년 7월 이전 세입자가 없었던 부동산을 발견했지만 상당한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온난방 설비, 배관, 건식 벽체, 단열재 및 전기가 필요했고 음향장비, 무대장비 또는 어린이 방에 의상을 설치하기 전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오후 5시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건물을 제 시간에 준비하기 위해 오전 5 시까지... 우리는 6주 만에 12주간의 공사를 마쳤고 교회를 시작하기 전날 입주 증명서를 성공적으로 받았습니다."

건물 내부공사에 따른 복잡성과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역 사회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도 캔드릭은 교회가 계획대로 첫 예배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역사상 언젠가 출판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교회개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날은 2020년 9월 20일이었고 우리가 가진 믿음과 인내와 비전을 이루기 위해 쏟은 노력 덕분에 248명이 나타났습니다."

캔드릭의 교회(Vivid Church)가 첫 예배를 시작하기 전날 좋은 소식을 받았지만 콜롬비아의 아이삭과 크로마 교회는 첫 예배 전날 모든 것이 취소됐음을 알게 됐다. 아이삭과 교회 핵심 그룹 구성원들은 2019년 늦가을에 만나 교회개척 모임을 시작했다. 그들은 2020년 2월에 첫 번째 모임을 가졌지만 이 모임이 유일한 만남이 됐다.

(2면으로 계속)



복음주의장로회 제 25차 총회가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열렸다.

'복음 가득 담은 새 비전과 새 땅 향한 총회' 제25차 복음주의장로회 총회, 신임총회장 신원규 목사

복음주의장로회(총회장 장광춘 목사) 제 25차 총회가 5월 24일과 25일 양일간 Church of Nazarene and Cielo Hotel Bishop-Mammoth 에서 열려 신임 총회장에 신원규 목사(좋은마음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신원규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25대 총회장으로 선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총대 회원들께 감사하다"며 "40여년 목회를 종합 정리해야 할 시기인데 총회장을 맡기신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기에 순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목회자의 소명을 함께 회복해가는 총회로써 바울과 실라처럼 견고한 동역 의식을 갖게 하고 위가겠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복음을 가득 담은 새 비전과 새 땅을 향한 총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목회자, 평신도 영성과 교회성장 세미나를 2회

개최하며 지 교회 임직자 교육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내년 5월에 열리는 차기 총회 장소는 알래스카와 멕시코 간 큰 중에서 택일 개최하게 되며 목사 장로 위로여행, 신년하례회와 성가찬양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25일 오전에는 총 회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으며 박성민 박사(전 아주사과 시립대학교 부총장)가 감사로 참여해 '기독교윤리학'이라는 주제로, 엄영민 목사(OC제일장로교회 은퇴/KAPC 증경총회장)가 '목회와 기도'라는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다음은 제25차 복음주의장로회 총회 임원명단이다. △총회장: 신원규 목사(좋은마음교회) △목사부총회장: 전모세 목사(오렌지힐교회) △장로부총회장: 박찬준 장로(풀러튼 영락교회).

(박준호 기자)



3면

시론 은희근 목사



4면

푸른초장 박태규 목사



16면

인터뷰 오세훈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번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역사/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kgbc.com / cjb2191@kgbc.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지역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지아익(임플란트)
- 구강외과.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제237차 목회자를 위한 가정교회 세미나

평신도가 살아나는 목회!

신약교회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경적 교회를 현실로!

[날짜] 2021년 7월6일(화) ~ 7월11일(일)
[장소] 휴스턴 서울교회
[신청기간] 2021년 5월 25일 ~ 6월 14일
[온라인 등록] http://www.seoulbaptist.org/
[문의처] 713-896-9200 / sbch.office@gmail.com

영어 세미나도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온라인 등록] https://nlftx.org/
[문의처] 713-896-7755 / seminar@nlfhouston.org
[장소] 휴스턴 서울교회 영어회중 NLF

가정교회에 대해 궁금하세요?
GBC 미주 복음방송 (AM 1190 또는 http://www.kgbc.com)에서 방송되는 "GBC초대석" 에서 (휴스턴 서울교회 담임목사) 이수관 목사를 통해 들어보실수 있습니다.

CDC 가이드 라인에 따라 진행되는 대면 세미나입니다.

● **발행인 칼럼** ●

안고 올라가기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너 죽고 나 살자”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그렇지 않은가. 이 세상은 누군가를 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다. 모든 영역이 다 그렇다. 입시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다. 그런 구조를 눈앞에서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 노를 비롯하여 여러 장르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디션(audition) 프로그램이다. 오디션에서 누군가를 제치지 않고 어떻게 다음 단계에 오를 수 있겠으며 정상에 이를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의 어느 오래 전 프로그램에서 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한다.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지 마시고 안고 올라가세요.” 나는 그 말을 하신 분의 진심을 믿는다. 그런데 도대체 다른 사람을 안고 어떻게 올라가라는 말인가.

그러나 그런 길이 있다. “흉년에 땅을 사지 않는다. 파장 때 물건을 사지 않는다. 재산은 만 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거를 보되 진사(進士) 이상은 하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조선시대 최고의 부자였던 경주 최 부자집의 삶의 방식이 바로 그런 길이다. 그 당시 부자집을 털던 활빈당(活貧黨)도 최 부자집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날 공직에 있으면서 부동산에 관한 고급 정보를 미리 알아 국민들이야 어찌 되든 땅을 사고 집을 사서 투기(投機)를 일삼는 현실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 부자집 삶의 철학이 심금(心琴)을 울린다. 다른 사람을 밟고 걷어차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으면서도 잘 사는 길이 분명히 있다.

“여러분 우리는 고릴라를 만나기 위해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주 스프링필드에 가면 링컨이라는 고릴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링컨의 정적(政敵)이었던 에드윈 스탠턴이 링컨을 놀리면서 풀어낸 독설(毒舌)이 아니었던가. 훗날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장관 자리에 바로 그 스탠턴을 임명했다. 링컨은 자기를 놀리던 정적이라고 걷어차고 승리를 노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따듯이 안고 올라가 진정한 승리가 되었다. 정치의 영역에도 정적조차 안고 올라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

나는 어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경쟁한 실력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감탄하면서 경쟁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의 등수(等數)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것이 그들에게 결코 중요하지 않았다. 나도 그렇지만 그 오디션을 유심히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그 과정 속에 서로 안아주던 모습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모두가 때때로 홀로 또는 자주 어울려 잘 되는 광경을 보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각박(刻薄)한 경쟁사회라고 하지만 상대를 밀치지 않고 밟지 않고 안고 올라갈 길이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어떤 영역이든 그 정상의 자리에서 한 없이 머물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외로운 정상, 쓸쓸한 내리막길이 눈앞에 분명하게 걷어차는 방식은 지혜롭지 못하다. 예수님은 저 하늘 자리는 내 자리가 하고 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신다. 안고 올라가기가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너 죽고 나 살자”의 세계관에 물들어 살 필요가 없다. 우리의 세계관은 주님 안에서 같이 윈(win)-윈(win) 하는 “너 살고 나 살자”이다.

북한, 어린 고아들까지 노동현장에 동원!

BBC, 팬데믹 국경봉쇄로 어려워진 지구책으로 고아들 노동동원에 따른 분석 보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북한 고아들이 국영 광산과 공장, 농장, 산림 등에서 노동을 자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국가를 위한 지혜와 용기를 가진” 수백 명의 젊은이가 국가를 위해 육체노동을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나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10대로 추정된다.

BBC 서울 특파원, 로라 비커는 이러한 보도를 분석해준다: 나는 북한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린 적이 있다는 탈북자를 인터뷰한 적이 있다. 그들의 묘사한 업무 환경은 끔찍했다. 탈북자들은 흔히 발생하던 사망 사고와 적은 음식으로 견뎌야 했던 길고 힘든 업무시간에 관해 설명했다. 이러한 업무 환경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많은 인권 단체들이 이번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와 사진을 깊은 우려의 눈으로 볼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지만 답이 필요한 더 포

재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강제 노동력을 찾아야 한다. 어린 “봉사자”들을 강제노동에 내몰면서도 이를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자원봉사

인권 단체들은 오랜 기간 북한이 아동들을 강제노동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북한은 이를 부인했다. BBC는 지난 2월 남한의 전쟁포로들이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탄광 등에서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North Korea says orphan children volunteering on mines and farms).

보내는 시기에 말이다. 지난 4월, 김정일은 어려운 시기를 준비하라며 이례적으로 자국의 문제를 인정했다. 북한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경을 봉쇄하며 경제적 소통과도 같은 중국과

사람의 백만분의 일이라도 갖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천내지역 탄광 단지에 달려갔다”고 전했다.

2020년 미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북한을 “최악의 아동노동이 벌어지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 내 관리들이 때때로 아이들을 동원해 “도로의 눈 치우기와 생산 목표 달성과 같은 특별한 과제를 완수하는 데 돕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16-17세에 “군대와 비슷한 건설여단에 배속돼 10년 동안 일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강제노동에 시달



북한: ‘고아 700명 육체노동에 자원’ 주장... 인권 침해 우려

팔적인 질문이 있다. 북한은 왜 광산, 농장, 공장에서 일할 무료 노동력을 찾고 있는 것일까? 북한은 김정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한 이후 절박해졌다. 필수 필수 공급품들이 마침내 국내로 들어오기는 했지만 경제를 재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보도가 있다. 경제를

로 추켜세우는 것도 이들을 공산당을 위한 자기희생의 역할 모델로 삼기 위해서다. 또 이번 결정은 청소년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단호한 조치로도 해석된다. 그는 K팝, 외신, 드라마 등이 위협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정일은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남들이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 아는 것을 원치 않는다. 특히 젊은이들을 탄광으로

의 거래를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몇 주간 “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전국적인 육체노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700명의 고아 역시 공장, 농장, 그리고 숲에서 이뤄지는 노동 작업에 자원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7일에는 “수십 명의 고아 어린이들이 담이 보여준

려 신체적, 정신적 부상, 영양실조, 피로와 성장 결핍으로 고통받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러한 주장을 거듭 부인해왔다. 이달 초 북한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 발표를 앞두고, 그가 북한을 상대로 “적대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개척 교회보다 ...

〈1면에서 계속〉 원래 계획은 2020년 3월 15일 온라인을 통해 직접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역할을 할당하고 연락처 카드를 준비하고 간

판과 배너를 만들고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고 오디오/비디오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팬데믹 봉쇄로 인해 이 모든 것이 전날 취소됐기 때문에 현장예배 대신 온라인예배를 수행하기 위

해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라고 아이삭은 대면예배 대신 온라인 예배로 교회개척을 알린 당시 긴박한 상황을 말해준다. 크로마교회는 2020년 8월 줌(Zoom)에서야 매주 모임을 시작했다. 크로마교회는 따라서, 시작

방법을 완전히 변경했다. 아이삭은 “우리는 교회개척의 전형적인 모델에 따라 2020년 9월 주일에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이어지는 개척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6개월 동안 미리보기 서비스를 수행할 예정이었습

(3면으로 계속)

필렌 교회 및 부지 판매

- 주정부 정식인가 면세
- 1.25Acre 부지
- General Commercial
- 80석 성전

프로빈 부동산 Jay Song (213) 389-0123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초저장,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KAPC Reformed Presbyterian University & Seminary

2021 학년도 Zoom 여름 특강

1978년에 설립되어 현재 1300여명의 목사 회원과 30여개의 노회, 그리고 650여개의 지교회를 산하에 둔 미주 지역 최대의 한인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교단 직영 신학교인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학년도 중 여름특강을 실시합니다

- 과목명: **"장로교회사" (Presbyterian Church History)**
- 담당교수: 오덕교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 일시: 2021년 6월 14-16일, 21-23일, 오후 7시-9시30분
- 청강 환경 (청강비 100불)

오덕교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전총장, 몽골 울란바토르대학교 총장 역임)



저서
『청교도와 교회 개혁』 (합신대학원출판부), 『장로교회사』 (합신대학원출판부), 『빈야드운동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와 신앙), 『중고개혁사』 (합신대학원출판부), 『청교도 이야기』 (합신대학원출판부), 『언덕 위의 도시: 청교도의 사회개혁 이상』 (합신대학원출판부), 『개혁신학과 한국교회』 (합신대학원 출판부) 등.

- 과목명: **"광장의 신학" (Theology of Square)**
- 담당교수: 이승구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 일시: 2021년 7월 12-14일, 19-21일, 오후 7시-9시30분
- 청강 환경 (청강비 100불)

이승구박사 (Ph.D,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저서
『교회란 무엇인가』 (나눔과 섬김), 『광장의 신학』 (합신대학원출판부), 『개혁신학탐구』 (하나), 『성령의 위로와 교회』 (이레),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SFC),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21세기 한국 사회와 교회』 (SFC),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SFC), 『전환기의 개혁신학』 (이레),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SFC 출판부), 『21세기 개혁신학의 방향』, 확장 개정판 (CCP) 등 20여권.

*문의처: 김동진 학감 (626-675-8010) djkim3333@gmail.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직영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장: 이정현박사 | 이사장: 양수철박사

154 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 310-749- 0577, 626-675- 8010

SNS 정치인 계정 임의로 정지 못시켜

BBC, 플로리다 주지사 SNS 관련법안 서명배경 따른 파장 보도

공화당 소속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정치인의 계정을 마음대로 정지시킨 소셜미디어 기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법안에 서명했다. '디플랫폼(deplatforming)'은 사용자가 SNS에 글을 남기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뜻하는 용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SNS 기업들은 사용자의 계정을 14일 동안만 정지할 수 있고 이를 어길시 하루에 벌금 25만 달러를 내야 한다. 지난 3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포함한 테크 기업의 로비단체인 넷초이스(NetChoice)는 이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최초의 디플랫폼 방지 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Florida governor signs bill to ban Big Tech 'deplatforming').

디샌티스 주지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기업이 보수여론을 잠재우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올해 초 거대 테크기업이 "빅 브라더와 더 다크 데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법안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3월 넷초이스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델비안코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를 근거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증언을 했다. 참고로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교회의 SNS 계정에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콘텐츠나 임신중절을 홍보하

는 제삼자의 광고가 게재되는 걸 허용했다고 침시다. 이런 경우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SNS 플랫폼에 이들이 게재를 허락하지 않을 콘텐츠를 게재하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수정헌법을 위반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

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러 SNS 플랫폼에서 퇴출당한 가운데 플로리다의 이번 법안 통과가 그의 잠재적 복귀를 의미하는지는 불투명하다. 트위터는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SNS 퇴출 트럼프, 돌아올 수 있을까...미국인들 관심 증가

통령은 지난 1월 미국 의사당 폭동 이후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퇴출당했고 유튜브는 그의 계정을 중단했다.

이달 초 페이스북 자체 감독기구는 페이스북의 트럼프 전 대통령 퇴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페이스북에 6개월 이내에 해당

는 BBC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몇 달 동안 시간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념적 동료로 여겨진다. 현지 언론 탭파베타타임스

에 따르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 법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이 법안은 일반 플로리다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법안에는 "테마파크나 유흥단지를 소유·운영하는 기업"은 면제 대상으로 포함됐다. 플로리다에는 디즈니월드 테마파크가 있다.

NBC 마이애미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위선적"으로 본다고 보도했다.

플로리다주의 앤드루 러닝 하원의원은 "페이스북이 테마파크를 만들었다고 침시다. 그렇게 되면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에 대한 규제도 못 하게 되는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공화당 대표인 블레이크 잉글리아딘 의원은 가

능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이 테마파크를 사서 그것을 '저커랜드'(창업자인 저커버그의 이름을 따서) 라고 부르고 저커랜드가 플로리다 법령에 따른 테마파크의 정의를 충족했다면, 그렇습니다."

현지 언론 탭파베타타임스



시론

피로스의 승리



은희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기원전 280년의 일입니다. 에피로스의 왕이었던 피로스는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지중해 연안을 제패하고자 패권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피로스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이탈리아의 신흥 강국 로마를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피로스 왕은 에피로스가 자랑하는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이탈리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로마연합군의 전력도 만만치 않았습니...

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로마연합군의 전력도 만만치 않았습니. 병력과 화력으로 본다면 로마가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 그러나 전투는 지리한 공방이 계속 됐지만 결국 힘겹게 에피로스의 승리로 끝났습니. 에피로스는 전투는 승리했지만 피해도 적지 않았습니. 기원전 279년 다시 피로스는 휘하 부대를 이끌고 서쪽의 아폴리아 공략에 나섰습니. 이번에도 맞서는 로마연합군의 병력은 에피로스 연합군을 능가했습니. 양측 부대는 아스쿨룸에서 맞붙었습니. 치열한 난전이 이를 동안 계속됐습니. 에피로스군은 보급품을 쌓아놓은 본진까지 유린되는 피해를 입었지만 최종적으로 후퇴한 쪽은 로마연합군이었습니. 피로스는 다시 한번 승리를 거뒀습니. 그러나 피로스의 승리는 공짜가 아니었습니. 에피로스도 15,000 병사를 잃었습니. 이번에도 이전과 같이 전사자의 상당수는 그리스 본토에서 온 정예 병력들이었습니. 전투에 이기더라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할 방법은 없게 됩니. 피로스 왕은 부하들에게 "이런 식의 승리를 한 번 더 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만다"고 말하면서, '패배와 다름없는 승리'를 자책하며 이탈리아 패권을 포기하고 말습니. 이처럼 승리했지만 실속이 없는 '패배와 다름없는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라고 부릅니다(피은 글 정리).

우리들 주변에 이런 '피로스의 승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부모와 자식들, 형제자매들 등의 가족 간의 분쟁에서도, 목사와 목사, 목사와 성도, 교인과 교인들 등 교회 안에서의 갈등에서도, 이웃 그리고 각 기관이나 단체들, 사회와 나라 안에서도, 각각각층에서도 혹은 재산 분쟁이나 감정싸움들 안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중 하나가 '피로스의 승리'입니. 우리 삶 안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모든 반복, 갈등, 분쟁과 싸움의 결과이기도 합니. 실제로 여기는 이겼는데 이긴 후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황폐화된 삶의 현상만이 남았을 따름입니. 우리의 삶 안에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목표 자체가 타인과 대충을 이기는 승리입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평화롭게 함께 사는 상생입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피로스의 승리가 아습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격려하며 함께 평화롭게 사는 일입니. 이 안에 은혜와 평화, 새 힘과 능력과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와 힘과 능력이 있다고 자기보다 못한 타인과 정신과 생활의 차이요건들을 지배하여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 의외로 어느 공동체 안에도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에 놀람기도 하고 흠칫 소름끼치기도 합니. 이런 분들은 '피로스의 승리가 주는 저주'가 자기 삶의 파괴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 '논쟁은 이길지 몰라도 친구는 잃는다'는 성인들의 말도 이런 차원일 것입니.

'파로스의 승리가 주는 저주'를 극복하기 위한 바울의 처방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손'입니다(빌2:3). 예수님의 처방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 예수님은 산상수훈 8복을 통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를 말씀해주셨습니. 그것은 바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는 것' 입니다(마5:9). 오늘 '피로스의 승리와 저주'가 내면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이민사회, 이민교회 안에서 가장 필요한 신앙의 덕목이 무엇입니? 생각해봅니. 예수님이 전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 바울이 전하시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입니. 요즈음 교회 안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 이때 약한 영들이 우리를 피로스의 승리로 툭툭 건드리기 쉽습니. 이때 우리 모두는 '피로스의 승리의 저주'를 떠올리며 영적인 무장을 단단히 해야 합니.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반드시 꼭 이겨야 한다는 승리의 목표와 자존심에 도전하여 나 자신도, 이웃도 다 잃어버리는 '피로스의 승리의 저주'를 '화평과 겸손'으로 다스려 '평화와 상생'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 pastor.eun@gmail.com

개혁 교회보다 ...

(2면에서 계속)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고 직접 모임을 하지 않고 있으며, 1년 반 동안의 교회개혁기간에 남은 멤버는 12명입니.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 공동체, 소그룹(2-4명) 제자훈련과 같은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가치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라고, 교회개혁 방법 모델이 급진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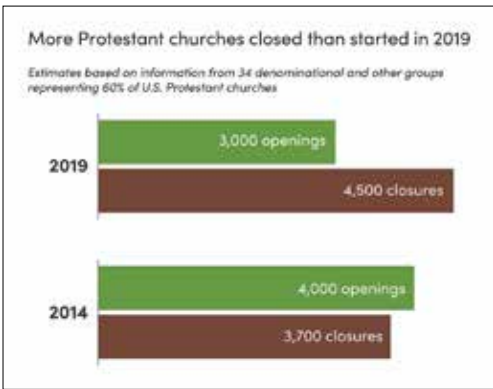
코로나교회 개혁멤버들은 개혁을 시작하기 위해 나섰을 때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에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

님이 하시는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오래 전에 이 노력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아이사는 말했다. "우리가 언제 출발할 수 있을지 모른 채 거의 2년 동안 개혁은 매우 어려웠고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했습니. 그러나 우리는 그 날이 올 것이며 우리가 온라인으로 심고 있는 모든 씨앗이 어떻게든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

코로나교회처럼 앞으로 일어날 일(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기에, 스테치는 미전역에서 벌여질 교회개혁에 대한 비슷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내 희망은 수확량이 많기 때문

에 더 큰 열정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 이지만 노동자는 여전히 너무 적습니"라고 그는 말했다. 교회 개혁에 대한 이전 라이프웨이 분석은 목회자들이 새로운 교회의 성공적인 시작을 보기를 원하는 이유를 제공한다.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새로 개혁된 교회는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기존 교회보다 더 효과적이었다. 평균적으로 2008년과 2014년 사이에 출범한 교회 예배자들의 42%는 이전에 교회에 참석한 적이 없거나 나 몇 년 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니얼 임은 교회개혁의 감소가 목회자들 사이의 인식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믿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 수치를 불확실한 경제나 신앙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부 목회자들이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활성화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맥코넬은 "미국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새 교회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팬데믹 이전에도 새로운 교회를 여는 속도는 문을 닫은 사람들을 위한 충분한 대체물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담임목사 청빙 공고
대흥장로교회는 미국 Los Angeles 지역에 위치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1977년 창립한 이후 43년 동안 분열없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꾸준히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최근 설교 동영상 2편, - 자기소개서 (목회소명/목회경험/신앙고백/성장배경/사모소개와 가족사진)
제출 마감일: 2021년 7월 22일
제출처: application.dkpc@gmail.com

충현선교교회는 미국 Los Angeles 지역에 위치한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서 1985년 설립한 이후 36년 동안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꾸준히 성장하여 온 교회입니다.
담임목사 청빙공고
자격: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이력서, 최근 설교동영상 혹은 오디오 2편, 자기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신앙 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제출 마감일: 2021년 6월 30일 (소인 기준)
제출처: chmccallcommittee@gmail.com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부럽다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 보세요.

나는 무면허 운전자입니다. 17세부터 운전할 수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나는 반세기가 넘도록 무면허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경찰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는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입니다. 하지만 설령 속도위반을 해도 절대 교통위반 티켓도 벌금이나 벌점도 받지 않습니다. 나는 설령

누가 벌점을 준다고 해도 그 벌점을 순식간에 지울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나 운전면허증을 내줄 수 있지한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남편, 자녀, 친척, 다른 사람들)은 내 허락이 없이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없던 길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막힌 길이 뱅 뚫립니다. 울퉁불퉁한 길이 평탄한

길이 됩니다. 마지막에 나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의 환호를 한 몸에 받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영국을 69년간 최장 통치하고 있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녀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가 범이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모든 운전면허증은 그녀의 이름으로 발급이 됩니다.

그녀는 직접 운전하지 않습니다. 왕실 운전기사가 그녀의 차를 운전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운전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영국 외곽의 시골길을 직접 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매일 장시간 운전하여 출퇴근 하느라고 심신이 지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운전을 대신해주는 운전기사가 있는 여왕이 부럽지 않습니까?

매일 전쟁터와 같은 일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일평생 의식주 문제를 걱정 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여왕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재력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고 싶은 사람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난 여왕이 부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 여왕이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던 젊은 시절 '영국 왕실에 차, 황제의 차, 달리는 별장'이라 불리며 호화스럽게 수제작한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여왕이 부러웠습니다. 학업으로 뭔가 마음이 고단했던 학창시절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 여왕이 부러웠습니다. 늘 급한 마음으로 빨리 운전하다가 교통위반 티켓을 정신없이 받았던 전도사 시절 교통위반 벌금, 벌점에 신경 안 써도 되는 여왕이 부러웠습니다. 나이가 든 요즘도 그녀가 부

럽습니다. 이혼이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그녀가 최근에 별세한 남편 필립 공과 73년 동안 결혼생활을 한 것이 부럽습니다. 부부가 결혼 50주년(금혼) 60주년(금강혼)을 기념하는 것도 드문 일인데 두 사람이 모두 장수하여 결혼 70주년(플래티넘)을 같이 맞이한 것이 부럽습니다. 그렇다고 여왕의 결혼이 언제나 순탄하지 않았 습니다. 긴 결혼 생활 동안 남편 필립 공은 공적인 자리에서 항상 여왕의 뒤에서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헌법적으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 나라에서 성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없는 유일한 남자다"라며 자신의 애매모호한 역할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 남편의 아내만 아니라 온 국민이 여왕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했던 여왕은 때때로 부적절한 농담과 정치적 발언으로 논란에 휘말리는 남편에 대해 어떤 마

음이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왕과 필립공은 73년 동안 인생의 긴 나그네 길을 끝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왕은 저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저는 저희 부부가 인생 나그네 길을 끝까지 함께 걸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금혼식, 금강혼식, 플래티넘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결혼 생활이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소원하며 두 손을 모읍니다. 그러기 위해 제가 굳은 결심을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 부터라도 내 아내를 여왕으로 모시리라." 이 방법이 제가 왕이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요?

푸/른/초/장

박태규 목사
(뉴욕 새침장로교회)



양은 평화를 연상하듯 성격이 순박하고 온화하여 좀처럼 다투는 일이 없고, 무리지어 군집생활을 하면서도 동료 간 우위다툼이나 암컷을 독차지하려는 욕심도 갖지 않는다. 또한 양은 반드시 가던 길로 되돌아오는 습성으로 인해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며, 예전 길로 다시 돌아오는 양의 습관으로 인해 맹수의 표적이 되었다. 본문은 목자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고 한다. 양은 성도로 비유되었다.

이러한 교육과 성경적 삶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성경 내용이 목자가 할 일이다. (요21:16)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베드로는 그 이후로 그리스도에게 받은 명령에 따라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는 목자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다. 제자들은 지상의 왕국이 회복할 때(크로노스)에 관심을 가졌으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때와 시기(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 맡기셨다. 오직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셨다.

여기서 '증인'(마르투스)은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는 성도가 주님의 참다운 증인이 되려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다스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억누르고 파워게임 하는 것이 다스림인가? 아니다. 지체가 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의 다스림은 섬기는 것에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목사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장로다.

1)억지로 하지 말고-자원함으로 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후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 하시느니라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기쁜 마음으로 목회하라는 것이다.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더러운 이들은 헛된 말을 한다. 구원과 상관없는 말, 영적 성장과 전혀 상관없는 말, 교회와 상관없는 말 이들은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에서 주님의 피를 거부하고 할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은 속인다. 속인다는 것은 사탄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탄의 가장 기본적 속성은 거짓, 참소하는 것이고 주님의 가장 기본적 속성은 진리, 진실, 사랑이다. 그러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들의 가르침과 교제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단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하여

바라보고 영적인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 목회 속에서 성도에게 보여줘야 할 내용이다.

3. 주님 영광에 참여할 자로 일하라

어떻게 이 신비한 영광에 참여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늘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소인가 헤아리기 어렵다. 천국을 다녀온 바울은 단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곳이라고 기록하였다"(고전2:9). 요한은 1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내용을 기록하였다. 요한복음 17장에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 예수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과 영화를 상기하며 이 엄청난 영광의 신비를 성도들에게 공동 상속하도록 요청하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믿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양하였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 이로 소이다"(요17:2). 이 기도가 받아들여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펜데믹시대에 양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많이 일어났다. 목자는 조금 더 성도를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기쁨으로 채워줘야 한다. 하나님의 목자이기 때문에... 아멘.

jtp615@gmail.com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

목자가 양을 잘 치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양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갈3:26), 영생을 얻음(요17:23), 세상에서 승리함(롬8:37-39),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함(골1:12), 생명책에 기록됨(계3:5), 하나님 나라를 얻음(단7:18) 등이다.

의무는 여호와를 사랑함(시31:23), 약속을 멀리함(렘5:3), 성도를 섬김(고전16:15), 믿음을 위해 싸움(유1:3), 그리스도를 증거함(엡3:8), 교회를 위해 봉사함(엡4:11, 12), 여호와를 찬양함(시30:4, 149:1) 등이다.

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였다. 왜냐하면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직접 보았고 경험한 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장로들에게 그들이 목자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린다. 참 목자의 목회 자세를 확인해보자.

1.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장 6-9절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중심 사역은

성도가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하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증인'(마르투스)은 '순교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증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할 각오가 필요하다.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증인의 삶이고, 평안의 때에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증인의 삶이다.

2. 양을 칠 때 조심해야 할 일들(5:2-3)

2)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단1-2)-교회를 어지럽히는 악한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내용이다 할례파들에 대한 경계이다. 이들은 말씀에 불순종한다. 결국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헛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구원과 상관없다. (요3:36)"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살후3:14)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한다. 이단들은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이득'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해서라도 목적 달성을 하려고 한다.

4)양 무리에 본이 되게 하고-"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벧전4:16).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당할 때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세상 소망 내려놓고 천국소망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한인교회 목회자가 말하는
코로나19 시대, 예배의 정수(精髓)!

국민일보 ©

그 많던 **예배사**는 어디로 갔을까

저자 김성국 목사 (미국 뉴욕 퀸즈장로교회 담임)

한국 판매처: 국민일보 02-781-9870
미주 판매처: 미주크리스천신문사 (1)718-886-4400 www.hisfingermall.com

Hisfinger
편집 디자인 : 미주크리스천신문사 기독교출판 히즈핑거

생명과 목숨, Life

인생은 그 사람이 가진 삶의 우선순위로 그 열매가 결정된다. 우선순위로 하루가 결정되고 일년 십년이 결정되고 결국 그 인생의 모습이 결정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가진 삶의 우선순위를 들여다보면,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가 고스란히 묻어있음을 본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삶의 우선순위에 가장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인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모든 가치와 우선순위는 한 가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본다. 그것은 바로 '생명'과 '목숨, Life(인생)'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떤 삶의 내용을 질문해도 한결같은 답을 한다. '먹고 살만 하십니까?', '아뇨,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습니다.' 등등. 그래서 생활의 기본단위를 의식주라고 표현하면서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이 모든 삶의 기초와 기본이 됨을 말한다. 결국 육신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러한 기초적인 의식주의 바탕위에서 더 힘쓰고 애쓰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인생살이가 좀 더 나아지고 풍족해지는 것을 만드는 일에 진땀을 흘리며 초점 맞추어

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도 부정하지 못한다. 모두가 절대 동의하게 된다. '사람이 죽는다는데, 이것 앞에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사상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가난하고 천박한 인생들이나 하는 이야기 아니다.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을 보면 평생을 학자로 살아가고자 했던 이들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는 자존심보다 생명과 목숨을 더 앞세우는 것을 본다. 1636년 12월 14일,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 조선을 공격한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려 발이 묶여 남한산성에서 농성을 하게 되는 데 성안에 갇힌 조선은 성 안에서도 자기들끼리 싸움을 벌인다. 주화파와 척화파의 싸움이다. 누가 승리했을까? 청에 의해 망국을 접어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척화파와 항복하여 백성의 피해를 줄이고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자는 주화파의 대립이었다.

누가 제일 목소리가 컸을까? 무엇이든 원칙론이 목소리가 제일 큰 법이다. 그러나 실제로 주화파의 주장이 이긴다. 당장 성문 앞에 청나라 대군이 도열하고 있음에, 달리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때 주화파의 대장 최

갖 애를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왜 성경은 자신의 목숨과 생명만 집중하며 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했을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가운데 그 의미를 찾게 된다.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풍년이 들어 더 소출을 많이 얻게 되니,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오버하게 되었다. 자신의 많은 소출이 자신의 영혼까지 책임져줄 것처럼 착각과 오해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부자를 어리석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성경은 부자를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성경은 오히려 게으른 것을 악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무엇인가? 생명과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목숨이 짐승의 목숨과 다르게 의미 있도록 만드는 영혼의 존재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욕심을 다하여 목숨과 생명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입고 하더라도 결국은 쇠하여질 뿐인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영혼의 가치와 존귀함을 간과해 버린 것이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 마는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자연 상태의 인생은 종국적으로는 결국 허무와 공허를 견뎌낼 수 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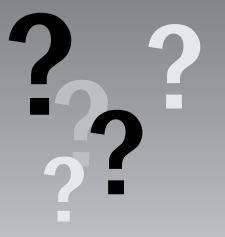
없다.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다.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할 것이라.'

복음이 담긴 작품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미우라 아야꼬라는 위대한 작가의 첫 출발도 그의 영혼의 깨어남에 서부터였다. 그 영혼이 주님의 복음으로 깨어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엄청난 영적 영향력과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였지만 그의 첫 시작은 매일 매일을 폐질환으로 각형하며 내일의 생명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폐병 상태였는데 그런 낙심할만한 상황에서 그를 깨운 것은 젊은 청년 전도자였다. 예수님으로 인해 영혼의 부요함을 경험했던 한 청년이, 곧 죽어가는 생명 속에 있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다시 살라고, 그 영혼이 복음의 불꽃이 되게 한 것이다.

장영중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다. "사람이 온다는 건 /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 그는 / 그의 과거와 / 현재와 / 그리고 /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중략)" 이 시를 읽으면서 새롭게 영감을 얻어 적어보았다. "한 사람이 교회에 처음 발걸음 하는 것은 /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 불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교회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한 번 간 적이 있는 권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은 했지만 성지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언제 성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탈환하였는지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통비치에서 K 권사

A: 이스라엘의 국가적 회복은 1948년 5월 15일입니다. 유엔이 투표에 붙여 찬성 33개국, 반대 13개국, 기권 10개국을 통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2550년 만에 나라의 주권을 회복한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여 주권국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다가 주후 70년경에는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은 파괴되고 110만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97,000명이 종으로 팔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세계에 흩날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후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은 세계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이리나 카피 톨리나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1948년, 2534년 만에 되찾은 나라 하나님에 보존

이스라엘이 거의 2550년 만에 유엔에 의해 독립을 하자 아랍인들은 유대인들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팔레스타인에서 쫓아내기 위해 전쟁을 했습니다. 독립 그 다음날인 1948년 5월 16일에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라크의 중동연합군 5-60만 명이 탱크를 몰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전쟁준비가 안 되었고 온 이스라엘이 아웨 하나님께 생명을 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양벌이 때를 지어 날아와서 아랍군사들과 탱크 속에 들어가 있는 군인들을 쏘아대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기적적으로 승리하여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와 동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1967년 6월 제 3차 중동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구가 당시 250만 명에 불과했지만 아랍연합군이 북쪽에는 시리아, 동쪽에는 요르단, 남쪽에는 이집트 모두 그 당시의 이스라엘보다 몇 배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었고 그 뒤에는 소련의 지원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병력은 1억 명이 넘어 누가 봐도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황상태에 빠졌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었던 모세 다이안 장군은 방송을 통해 짙막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나라를 다시 빼앗길 수 없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속전속결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선식의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이다." 곧 이어 용사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며 국방장관은 마이크 앞에 앉아 다윗이 쓴 시편 3편의 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라디오방송을 통해 낭독된 시편의 말씀은 용사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는 불굴의 용기를 가졌습니다. 중동연합군은 6월 5일 소련제 탱크로 공격하려 했으나 이를 알고 이스라엘 전투기가 새벽 3시에 먼저 기습 선제공격으로 6일 만에 승전고를 울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구예루살렘 지역과 골란고원을 탈환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1000명이 죽었고 아랍연합군은 2만명이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영토가 3배나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쾌거였습니다. 신앙의 용기가 큰 승리를 가져다준 것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는 많은 남겨진 이들의 눈에 그의 이름과 함께 놓여진 장례단 빨간 십자가를 더욱 더 선명하고 아

름답게 빛나게 할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존귀한 영혼, 세상의 변화

- 생명, 목숨, 영혼

사는 것이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첫째는 그렇게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살아도 특별히 별다른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부자라고 특별한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요즘 같은 시대에는 부자들일수록 더 예전 가난할 때 시골 농부들이 먹던 밥상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참 모를 일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목숨과 생명을 위하여 그렇게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힘들게 고생했는데, 정작 그렇게 살고자 애쓰다보니까 오히려 생명과 목숨, 즉 건강을 해치는 어려움이 생키더라는 것이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

그러면 목숨과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 성경도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처럼 목숨과 생명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강조한다. 하나님께 없는 이 소중한 목숨. 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일은 천하 어디에 없다고 말씀한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16:26).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 많은 이들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해석을 한다.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영적 접근에 앞서서, 아주 명백하게 '천하보다 귀한 것은 바로 네 목숨, 네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천하에 하나님께 없는 이 소중한 목숨. 이 생명, 이것은 천하를 주

명질이 한 말이 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다. 일단 살아남아야 하니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이자는 입장이다. 많은 사람이 어려운 전쟁의 문제가 다 지나고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를 향해 무수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것은 비겁한 선비정신에 불과한 것이다. 현실에 직면했던 그 시기에 아무도 그를 반대할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후에 영의정에 오르며 최고의 외교가로 정평을 얻게 되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유지보존 해주었기 때문이다. 일단 살아남아야 한다. 자존심도 버리고 고개도 숙일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이다.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옳고 그르고를 넘어서는 문제가 목숨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목숨과 생명이 소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신 분들, 건강을 잃고 천국에 가신 분들도 한결같이 목숨과 생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유언을 남긴다.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니 제발 무리하지 말라고 한다. 몸을 희생하지 말라,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다짐하게 하고 병명복장을 강요한다.

욕심을 이기는 영혼

성경도 사람의 목숨을 아주 귀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을 귀하고 좋은 일이라고 말하며, 오히려 목숨을 보존하기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게 사는 것은 아주 악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명과 목숨을 더 연장하기 위하여 온

존재가 되고 만다. 이 모든 허무와 공허를 극복할 길이 무엇인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육신의 목숨이 다한 후에도 죽음 그 이후에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의 복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이 모든 허무와 공허를 극복할 길이 무엇인가? 영혼에 초점을 맞추어 육신의 목숨이 다한 후에도 죽음 그 이후에도 죽지 않는 영혼의 복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영혼의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과 선물을 받고 누리는 유일한 길이 된다. 아무리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 영혼의 복을 좌우하는 장례식 화단의 빨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진짜 허무해지는 것이다. 다시 만날 소망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해줄 위로도 전무해지기 때문이다.

영혼의 회복, 세상의 변혁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 묻는다면 영혼의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이다. 나의 영혼이 복음으로 인해 부요하여지고, 내가 전하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으로 인해 타인의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다. 세상에서 영혼이 잘되는 복을 생각한 채 인생의 목숨과 생명을 풍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영혼의 관점과 복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에 대해 당당하게 믿음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길

시고 / 주님 친히 방문(訪問)오시는 순간입니다. / 한 사람이 오는 것은 한 인생이 통째로 오는 것입니다. / 한 사람, 한 생명, 한 영혼.

생명, 목숨, 영혼

한 사람의 인생은 그저 의식주가 유복하여 질 좋은 환경에 산다고 결코 훌륭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고급스런 집과 차, 많은 지식과 명성, 그런 것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주의 교회를 혼돈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한 가지 더 겉가지로 붙어있는 악세사리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그런 이들이 교회를 타락시키고 물들게 하며 온전히 거두지 못한 영혼의 모습으로 주의 몸 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나의 인생, 목숨과 생명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서 깨어나야 한다. 나의 영혼이 생기와 복을 얻어야 한다. 그 영혼의 넘치는 감격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에 마음이 가도록 이끌어갈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그때에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더욱 힘 있게 펼쳐지고, 세상을 바꾸는 변혁의 일들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영혼과 못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은 점차 땅의 목숨과 생명이 다하는 그날에 그가 받을



목회서신



여승훈 목사 (남가주보배로교회)

“Return To Me and I Will Return to You”

언젠가 같은 지역 내에서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을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이 매우 지쳐보였습니다. 그 목사님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안부 인사를 먼저 건넸습니다. 그 목사님의 답변은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 아주 많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목회 프로그램들을 다 동원하여서 시도를 해보는데 별 진전은 없고 목회사역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 목사님께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단순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달리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말을 들은 그 목사님은 “이것저것 온갖 연구를 다해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시도를 해보아도 안 되는데 초보 그리스도인들이 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초보 그리스도인들이나 접하는 기초 진리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사역을 생각해봅시다. 그들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들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주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정교도들의 사역을 보

십시오. 그들의 사역의 중심은 언제나 주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스러움과 그 놀라운 능력을 보지 못하는 경향이 매우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움직여야 하고, 사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보지 못하다 보니 그 결과로 방법론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론이 항상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성공하는 것이 마지막 목표가 아니기에 그런

방법론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관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과 능력이 최고의 자랑거리로 높여지지 못하고 사람의 업적과 발자취들이 더욱 드높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놓친 결과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종종 접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모든 것이 껌데기에 불과한 것임을 깊이 되새기고 싶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충분히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껌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 역시 껌데기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역시 껌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것 역시 껌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사람 보기에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나 보이나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

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은 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눈을 열어 줍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이해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이 결정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다 하더라도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는 성령의 조명하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온갖 보화는 곧 천국의 아름다운 은총들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철학의 시각으로도, 과학의 시각으로도, 그 어떤 인간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철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으로 도저히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제한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실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천국의 은총들은 분명히 실재합니다. 실재하는 천국의 은총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오랜 세월동안 그

리스도의 십자가 설교를 들어왔다 할지라도 머리 속에 십자가에 관한 지식으로는 머물러 있을지는 몰라도 가슴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착각을 합니다.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이 곧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말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믿어주고 세례를 베풀고 때가 되면 직분을 주기도 줍니다. 그러나 그래서 안 됩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고 그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진리를 증거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성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함으로써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또한 그가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지게 하는 확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 newsong6364@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큐어넌은 교회가 쫓아내야 할 이리때’

미국의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극우 음모론 단체인 큐어넌의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 신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큐어넌은 ‘딤 스테이트’라 칭하는 비밀 조직이 미국과 세계의 경제, 정치, 통치권을 장악하고 국가 전복을 노리고 있다는 음모론과, 이들이 사탄을 숭배하고 식인(食人),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의 국가 전복 시도를 막으려 한다는 음모론 등이 혼합돼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은 효과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백신을 팔려고 일부러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등의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했다.

큐어넌 음모론은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인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랭클린 그레이엄, 그레그 로리, 로버트 제프리 목사 등 대표적 보수 목회자들이 비판에 나섰다. ‘백신을 맞으라’며 독려하고 있는 중이다.

제임스 켈달 캘리포니아주 마데라의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목사는 최근 베드로전서 3장 18~22절을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큐어넌을 비판했다. 그는 “나는 성경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양 떼를 지켜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악한 무리를 심판하신다고 가르친다”고 말했다.

켈달 목사는 “그러나 큐어넌은 큐(Q)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되어 악한 무리를 심판하고 그의 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트럼프) 추종자들은 그들의 작은 유포에서 살 것이라고 가르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목회자로서 나의 일은 이리때로부터 양들을 지키는 것이며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뿐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윈스턴살렘의 제일얼라이언스교회 벤 마시 목사 역시 큐어넌을 비판했다. 그는 “큐어넌은 이미 수많은 교회 안에 퍼져 있다”며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마시 목사는 기독교선교사연맹 온라인 지지 그룹의 일원이기도 하다. 지난 1월 6일 큐어넌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을 공격할 당시 “폭도 중엔 목회자들도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AFP통신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음모론을 펴

치고 있는 세력이 온라인상 운동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음모론자들은 소규모 극우집단 출신인 경우도 있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보통 사람들인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통신은 밝혔다.

어, 진짜? 임박한 코로나 중국기원설

미국과 유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중국 기원설 논란이 폭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했을 때 음모론으로 치부됐던 사안이지만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혹 규명을 지시하면서 분위기가 급변전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설은 ‘충분히 가능한 이론’ 수준으로까지 격상된 분위기다.

파이널설타임스는 31일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기원 파악 지시가 연구소 유출설에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분위기 반전의 결정적 요인으로 저명한 과학자들의 입장 발표를 꼽았다. 미 프레드 허친슨 암 센터 소속 바이러스 전문가 제스 블룸 박사 등 과학자 18명의 기고문이 지난 14일 과학 논문지 ‘사이언스’에 공개됐다. 여기에는 “실험실에서 우연히 유출됐다는 이론과 동물을 통해 감염됐을 이론 모두 유효한 상태다.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될 때까지 자연 기원과 실험실 유출에 대한 가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뒤이어 지난 24일 우한연구소 연구원 3명이 코로나19와 비슷한 증세로 쓰러져 치료를 받았다는 미 정보기관 보고서를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WJS) 보도도 나왔다.

연구소 유출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의혹과 닿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 주장했던 내용이지만 페이스북은 이를 ‘가짜뉴스’로 여기고 지난 2월부터 게시물 삭제 콘텐츠 목록에 올리기가까지 했다.

페이스북은 그러나 지난 27일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공중보건 전문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더 이상 코로나19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주장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며 반복했다. 가짜뉴스가 규명해 볼 가설로 뒤바뀐 것이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연구소 유출설을 배척했던 미 주류 언론도 입장을 바꾸고 사실 가능성에 주목하고 나섰다. ABC뉴스는 “실험실 유출설은 배척돼왔지만, 이제는 진지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과 유럽 주요 학자들의 지원 사격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피터 호테스 베일러 대학 교수는 NBC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의 기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코로나26이나 코

로나32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미래의 세계적 대유행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소한 6-12개월 과학자들이 우한에 머물며 역학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며 “가능한 제재를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한 없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세인트 조지 대학교의 앤저스 달글리시의 대 교수와 노르웨이 바이러스 학자 비르게르 쇠렌센 박사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작성한 논문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유기화합물의 구조가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 중국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 부보좌관 매슈 포틴저는 “중국의 윤리적인 과학자들은 팬데믹 초기 연구실 유출을 의심했는데,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침묵시켰다”고 말했다. 마이클 매콜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중국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은폐로 350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전 세계에 경제적 파멸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종말론’ 부부...아이들·전처 모두 살해 혐의

종말론 신도로 알려진 미국의 한 부부가 아이들을 모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은 전처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26일 CNN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아이다호주의 대배심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남편 채드 데이벨(52)과 로리 벨로(47)를 벨로의 두 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데이벨은 전 아내인 태미를 살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태미가 숨지고 몇 주 뒤 현재 아내인 벨로와 재혼했다.

대배심은 이들 부부에게 아이들을 살해한 것에 대한 1급 살인 혐의를, 아이들과 전처를 살해한 것에 대해서는 1급 살인 공모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에게는 보석 없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살해된 두 아이는 타일리 라이언(사망 당시 17세·여)과 조슈아 벨로(사망 당시 7세·남)다. 아이들은 2019년 9월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실종됐고, 경찰은 이듬해인 2020년 6월 아이다호주 프리몬트카운티에 있는 데이벨의 뒷마당에서 아이들의 유해를 찾았다.

데이벨의 전처 태미는 당초 2019년 10월 잠을 자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경찰이 이들 부부에게 실종된 아이들의 행방과 전처의 죽음에 대한 심문을 한 뒤 두 사람이 갑자기 종적을 감추면서 전국적인 뉴스가 됐다.

부부는 일명 ‘돔스데이 커플’(최후의 심판의 날 부부)로 알려져 왔다. 데이벨은 심판의 날 관련 단체에 연루된 인물로 종말론 소설을 쓰기도 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의 종교적 신념이 살인을 저지른 한 요인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면 숨진 전처에 대해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데이벨은 전처 태미가 숨지기 약 한 달 전 태미의 생명보험을 변경해 사망보험금을 최대로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벨로 역시 기묘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 그는 2019년 1월부터 전남편 찰스 벨로와 별거 중에 아들 조슈아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하고 있었다. 같은 해 7월 이들은 부부 싸움을 하다가 몸싸움으로 번졌고, 찰스가 야구방망이를 집고 소리를 지르자 같은 집에 있던 벨로 오빠 콕스가 그를 총으로 쏘 죽였다. 오빠 콕스는 이 사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채 같은 해 12월 자살했다. 전남편 찰스가 양육권 소송 중 법원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벨로는 자신을 신으로 믿었다고 한다. 사람들이 예수의 재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구에 보내진 신이라는 것이다.

프리몬트카운티의 린지 블레이크 검사는 코로나19로 부부에 대한 기소가 미뤄진 탓에 아이들 유해를 발견한 지 거의 1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록 지연됐지만 이 사건의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성실히 일해 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美, 25개주 성인절반 백신접종 완료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계속 이뤄지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도 점점 속도를 내고 있다. 50개 주 중 25개 주에서 성인의 절반이 접종을 완료했고, 항공



여행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90%를 회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CNN 방송은 24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집계인 25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성인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보도했다. 25개 주에는 뉴욕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하와이 메릴랜드 콜로라도 메인 매사추세츠 미시간 오리건 등이 포함됐다. 백신을 다 맞은 성인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메인으로 62%에 달했다. 또 24일 기준으로 25개 주 가운데 메인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버몬트에선 전체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 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만5000여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540여명이었다. 이는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57%, 23% 줄어든 것이다.

등교수업을 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다.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는 올가을 새 학년도부터 대면 수업을 전면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일주일여 5일 두 학교에 나와 수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도 속속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 CNN은 미국 교통안전청(TSA) 통계를 인용해 일요일인 전날 미국 전역에서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행객이 186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5월 메모리얼데이 연휴 직전 일요일의 항공 여행객 약 210만명의 90%에 달한다. 코로나19 상황이 한창이었던 지난해 같은 시점의 항공 여행객 26만7000명에 비해선 약 7배나 높아졌다.

거룩한 부담

신실한 기독교 신앙인들은 자신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핵심은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또는 구별된 삶이다. 성경은 회심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뒤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다.

거룩한 삶은 반드시 마음의 결단과 행동의 변화를 동반한다. 신앙인으로 구별된 삶의 모습은 주위사람들도 알 수 있다. 사실 신앙인에게는 일종의 거룩한 부담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은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법 크기에 자연히 자신의 행동의 영향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물론 거룩한 부담은 외식주의에 빠지게 한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여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 인정을 받으려 할 때 외적인 요인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는 순수한 동기를 지닌 성도 역시 과연 거룩한 삶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에 대해 혼동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를, 예수를 믿기 전에 행하던 습관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일 것이다. 특히 한국인들은 술과 담배를 끊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적 결단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외에도 세상적인 유흥을 즐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평상시 자신이 지나치게 좋아하던 세상적인 놀이를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있다.

이런 행동의 변화가 지닌 가치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신앙인다운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삶이란 가시적인 습관의 변화보다 더욱 심오하고 신중하다. 무엇을 하고 하지 않는가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넘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한 부담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적 정리가 요구된다.

종교개혁 이후

16세기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이 성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중세 로마가톨릭교회는 믿음을 지닌 성도라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반드시 선행의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죄인의 구원과 관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면서도 이는 신앙적 행위를 통해 얻어지는 것임을 강조

한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신학논쟁의 연장전을 치른 것이다.

초대교회 신학을 집대성한 교부 어거스틴(354-430)은 구원에 관하여 불가역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였으나, 펠라기우스(345-418)는 인간의 의지가 큰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중심에는 인간의 부패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어거스틴은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에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구원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원죄를 부인한 펠라기우스는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유전되지 않기에 개인의 자유의지와 노력에 의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종교개혁자들의 노력으로 어거스틴의 사상이 회복될 수 있

람이 죽어야 하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항상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앙인이 자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로마가톨릭교회가 성화 안에 칭의를 포함시킨다면 루터의 전통은 이와 반대로 칭의 안에 성화를 포함시키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성화에 대한 다른 전통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1509-1564)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자들에게서 발견된다. 이들 역시 성화가 완전히 부패한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인간은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성화에 관하여 루터와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는데, 그것은 성화와 칭의를 구분하지 않은 채 그리

새로운 전통

칼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웨슬리(1703-1791)에 의해 성화교리에 관한 새로운 전통이 세워졌다. 어려서부터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웨슬리는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생겨난 자연신론이 신앙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던 현실 속에서 영적 각성을 위해 형식적인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버리려고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성화란 믿음의 결과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다. 이 전통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온전한 거룩에 이를 수 있는가에 있다. 성화는 거듭날 때 시작해서 그 후로 점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자로 성장한다. 성도는 반드시 성경읽기와 기도 그리고 다른 필요한 경험적 수단들을 통해 성

현재 한국교회 안에 완전주의적 요소가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이 사실이다. 초기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의 영향 때문이었을까? 그들은 신학자들이 아니었고 목회경험도 없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지를 찾은 자들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학을 세밀하게 논하는 것은 무리가 될 수 있다. 단지 시기적으로 볼 때 그들이 2차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에 틀림이 없다.

드디어 한국교회의 성화론을 이해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한국교회 안에 성화론이 불완전하게 정착한 이유를 알 수 있다. 하나는 기독교가 유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동양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 불교의 전통으로 배제하였으나 유교의 장점을 기독교에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왔다. 그 결과 교파를 초월하여 성도들이 일종의 수양적 형태를 통해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는 성화의 사상을 쉽게 수용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에 대한 보답을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형태를 취하게 하였다. 자기수양을 강조하는 한국인의 전통적 종교성에 맞춰 열렬한 기도생활과 성경묵상이 보편화되었다. 자신이 성화의 주체라는 신학적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의 틀 속에서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심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사상에 대한 강조로 인해 율법폐기론 또는 방종주의가 성행하기도 했으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교리를 운명론으로 이해하면서도 줄곧 자신에게 신앙적 책임을 물으려는 경향을 지녀왔다. 이와 맞물려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비한 경험에 대한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장시간 금식하거나 밤을 새며 열렬히 기도하는 신앙을 소중히 여겼다. 자신의 죄와 무능력을 깨우친 성도일수록 더욱 영적 체험을 갈망하였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모습이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성화론은 매우 혼동스럽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불완전하게 결합되어 있다. 또한 성경적 진리와 전통적 종교성이 혼합되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값싼 복음,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니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신앙형태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 거룩한 삶에 대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성화를 신앙적 고민거리로 여기지 않는 편만한 신앙의 답답한 유혹에 빠져있다. 교회의 개혁은 성경적 신앙을 추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covenan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36)

부제: 교회가 가르친다!(22) - 거룩한 삶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십자가 구원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믿는 신앙형태 인기 교회개혁은 성경적 신앙 추구, 거룩한 삶은 가시적 습관 변화보다 더 신중

었다. 나아가서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그들의 영향 하에 각자의 신앙적 전통을 세워가기 시작하였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르틴 루터(1483-1546)는 이신칭의 교리를 강조하였다.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 세워진 한 전통은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모든 행위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인다. 성화가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성화도 오직 인간의 도덕적인 삶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어떤 선행이나 신앙의 행위를 통해 신앙인이 더욱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성화의 주체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전통이 칭의를 얻은 이후 성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앙인은 언제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옛 사람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 사

스와의 연합을 통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성부의 계획대로 성자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이 성령에 의해 죄인에게 적용된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 자신이 지상에서 거룩한 삶을 이루신 것은, 자신에게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것이었다고 확신한다.

이들은 루터의 전통 속에서 고민거리였던 옛 사람에 대한 문제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이미 해결되었다고 본다.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상태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있다면 어떤 일을 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성화가 가능할까? 감각적 성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성화를 위해 옛 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는 영적훈련을 치러야 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지속적으로 그를 본받아야 한다. 이들은 성화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성찬과 같은 은혜의 방편도 중시한다.

화를 이뤄야 한다. 특히 하나님을 향한 구도자의 자세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다. 완전 성화라는 고차원의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때 성도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파괴된다. 물론 갑자기 전혀 무흠한 성자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이 완전한 상태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항상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18세기 미국에서 1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다.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인물은 칼빈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조지 휘트필드(1714-1770)로서, 웨슬리와 함께 대학에서 공부를 했던 인물이었다. 한편 웨슬리의 성화론은 19세기 미국의 성결운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영국에서 출발한 감리교가 미국에 전하면서 완전성화 교리 역시 함께 전해졌다. 특히 미국에 와서 부흥운동을 배경으로 즉각적 결심의 형태를 지니게 되었는데, 향후 믿음으로 성화가 가능하다는 확신은 미국의 제2 대각성을 이끌었던 부흥사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국교회의 상황

Worldwide church directory grid with 24 columns and 4 rows.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location, and contact info. Includes '동부(NY, NJ)교회', '뉴욕세마네교회', '뉴욕목양장교회',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뉴욕새벽별장교회', '뉴욕새생명장교회', '뉴욕새사람교회', '뉴욕센트럴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사랑의동산교회', '어린양 개혁 교회', '빛과소금교회', '퀵즈장로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하와이 행복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멕시코 현지인 교회'.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복있는 사람

“복인”이란 말씀을 자주 사용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들 같은 어린 교역자인 제게 선하고 고맙게 예우해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우리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실 것이라 여겨지곤 합니다. 어쩌면 그 장로님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의 직을 감당하시면서 아니 인생을 경영하시면서 복인 곧 복 있는 사람 즉 복 받은 사람이 되시고자 하는 축복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사시는 듯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번 사는 이 소중한 인생을 복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력이 화려하고 아무리 배경이 좋고 아무리 아이큐가 높고 아무리 잘난 평가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거나 축복을 상실하면 불행의 늪을 허우적거리며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1장 1절에 보면 복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복 받은 사람들과 복 받

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복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살지 말고 복 받은 사람으로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과 거리가 먼 사람으로 살지 말고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려는 복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축복이란 용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듯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왜 저분이 하나님의 축복 곧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축복이란 용어와 개념을 가볍게 혹은 경시하며 그런 설교나 신념을 가진 이들을 수준 낮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기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낙원으로 인생 본래 누릴 에덴의 축복을 상실한 인생의 후예들은 잃어버린 축복의 에덴생활을 회복해야하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고 용납하여 복 받은 사람 그리고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자기 결단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이며 동시에 영적각각을 소유한 신앙인이기에 어느 정도 복 받은 사람의 길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끔 걱정스러운 모습들을 내게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인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바라볼 때 복 받기 어려운

신앙과 삶의 행태를 가진 이들을 대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저렇게 살아서 복 받을 수 있을까? 저렇게 교회생활을 해서 복인이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복 받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은 교인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알고 소중히 여겨 기도하여 복 받은 교인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복은 실체가 없는 실체입니다. 복은 형상이 없는 현실입니다. 복은 가벼운 단어 같아도 인생에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무게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축복의 비전을 던져 불러 내셨습니다. 이삭은 야곱을 먼 곳 하란으로 떠나보낼 때 축복의 말로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열두 아들들을 축복의 말로 축복하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미에 열두 지파를 말

로 축복하였습니다. 교회는 예배를 마무리 할 때 목사의 축도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봐야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복인으로 복을 누리며 복을 끼치며 사는 지... 나는 지금 복을 받을 사람으로 사는지... 우리는 반드시 복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 받은 교인 복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 매김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복 받은 사람으로 인도해줍니다. 성경은 축복의 안내서입니다. 바르게 살면 복 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면 복 받은 사람이 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면 복 받은 사람이 됩니다. 내 부모를 바르게 섬기면 복 받은 사람이 됩니다. 내 이웃을 바르게 섬기면 복 받은 우리가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하는 자로다”(시 1:1-2). cyd777@hotmail.com



미드웨스트대학교 2021년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학사 9명, 석사 15명, 박사 11명 총35명 2021년도 Midwest University 학위수여식 열려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2021년 학위수여식이 5월 20일 세인트루이스 본교 캠퍼스에서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크리스티나 정 교수 사회로 고흥식 교수의 기도, 린넬 슈메이크 박사(이사장, 전 미주리주 하원의원) 메시지 후에 제임스 송 총장이 졸업생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어서 피영민 교수와 윈츠벨 시 시장 Mr. Nick Guccione(Mayor, City of Wentzville)의 축사, 본교 이사 Dr. Stephen Combs 축도로 마쳤다. 교무처장(Academic Dean) 이희철 박사는 학사보고를 통

해서 이번 졸업식에 학사 9명, 석사 15명, 박사 11명 총 35명의 학위자가 배출됐음을 보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졸업자들 다수가 참석하지 못해 소수 졸업자와 내외빈만 참석한 조촐한 졸업식이었지만 졸업식을 치를 수 있을 만큼 코로나 사태가 진정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한국의 공무원으로서 미드웨스트대학교 J비자 교환연구원 프로그램으로 나와서 지난 1년 혹은 2년간 미국 훈련기관 연수를 끝내고 돌아가는 5명은 Research Scholar Certificate가 수여됐다. 또한 이번 봄학기 J비자 교환연구원들을 위한 스페셜 세미나에 성실히 참석한 8명에게 Research Scholar Seminar Completion Certificate을 수여했다. 미드웨스트대학교는 예년보다 더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양성하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각 전문 분야의 리더들을 배출하며 또 한 단계 더 발전해 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기독교 인재 양성의 산실로서 그 역할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트대학교)

제32집...문학 당선자 명단 발표 미주크리스찬문인협 출판기념 감사예배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이사장 정지윤 목사) 창립 제38주년 및 크리스찬문학 제32집 출판기념감사예배가 29일 오전 10시 로텍스 호텔에서 열렸다. (11명으로 계속)

마감 10월 31일, 추천도서 5권 중 선택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제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조명환 목사)가 주최하는 제 7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행사가 열린다. 7회째 이어지고 있는 본 행사는 신앙서적 독자의 자변확대와 독서를 통한 내면의 성장과 신앙적 연단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후감 추천도서는 '믿음과 0.2%의 가능성'(김영길, 쿠팡출판사), '돌파하는 믿음'(탐 소르기, 스텝스톤), '간절한 매달림'(

토미 테니, 규장), '세상이 흉내 낼 수 없는 기독교'(제라드 윌슨, 생명의 말씀사),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피터 스키치로, 두란노) 등 5권이다. 이 추천도서는 지난해 심사를 맡은 에피포도예술인협회 회장 백승철 목사와 기독교서점협회 장 전인철 목사의 추천으로 선택됐다. 응모된 독후감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수상자 1명에게는 500

달러, 우수상 2명에게는 300달러, 장려상 3명에게는 200달러의 상금과 부상이 전달된다. 마감은 금년 10월 31일까지며 독후감 분량은 레터 사이즈 3페이지, 제출은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초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총회에서 열리게 된다. (이성자 기자)

독/자/투/고

최초의 유튜브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최대보라 목사 (LA다민족선교)

오월은 '가정의 달'로서 많이도 분주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이 1년에 1번 있는 '어머니(어머비)날'을 맞아서 분주히 꽃과 선물, 음식까지 사서 들고 오가는 모습을 아직도 흔히 볼 수 있어서 나의 마음이 흐뭇하다. 내가 사는 시니어아파트에서는 아들, 딸을 기다리시는 노부모님들이 그 날엔 현관에서 고운 옷을 차려입으시고 상기된 모습으로 자녀들을 기다리시기도 했으며 어떤 분들은 그냥 간편한 복장에 자녀들이 들고 올 선물과 음식을 기다리는 모습도 내 눈에 들어왔다. 일찍이 우리 한국의 교육은 초등학교 때부터 '효'를 강조하였고 자연스럽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을 몸에 배도록 가르쳐왔다. 교회 역시 성경적 가르침으로 '부모공경'을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사랑, 다음으로 이웃사랑의 첫 계명으로 가르쳐왔고. 그러나 요즘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효'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진 느낌을 나는 가끔 갖게 되는데, 그들의 삶이 너무 바빠서 인지? 아니면 부모를 좀 가볍게 여기는 시대풍조 때문인지? 얼마 전에 실린 한국에서의 페이스북(Facebook) 한 장면에 나의 눈이 멈추었는데, '꽃으로 통틀 생각하지 마라!' 라는 플래카드였다. 누가 걸었는지? 살펴보니-우리 엄마-라고 적혀 있

었다. 내용을 전후 댓글로 살펴보니 1년에 1번 이벤트식의 카네이션, 혹은 꽃다발로 끝내지 말라는 어머니들의 반란이었다. 물론 그 말 속에는 꽃뿐만 아니라 때로는 선물과 현금도 함께 포함된 말이었을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달라서 대학(원)까지의 학비와 결혼자금, 그리고 집장만(혼수비용) 등 부모의 부담은 허리가 휠 정도이다. 게다가 요즘 신조어가 된 '캥거루족'(부모와 함께 살며 도움을 받는 젊은이)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그러나 미국은 만18세가 되면 자녀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앞길을 그들 스스로 개척하여 부모 곁을 떠나간다. 그래서 인지 미국의 부모님은 비교적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낮고 노후준비도 그들이 스스로 준비하는 추세이다. 자녀들이 1년에 1번이라도 부모를 찾아오면 감사하고 감격해한다. 반면에 한국부모는 자녀에게 많이 투자(?)하였기에 기대치가 비교적 높은 것 같다. 내가 아는 어느 한국의 부모는 그들 재산의 대부분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줬고 노후는 자녀들이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받을 때는 고마워했지만 그들의 자녀들은 시간이 갈수록 발길과 관심은 뜰려서 부모의 마음은 실망과 허탈감으로 급기야

부자간에 있어서는 안 될 일(?)까지 생겨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자녀를 키워보면서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 효도를 정성껏 하고 싶으면 그 부모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안계시기에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야 불효하였음을 우리 모두는 후회한다. 가뜰이나 코로나로 출입이 통제되고 외로이 지낼 때가 많았던 지난 1년은 노부모님에게는 힘든 시간들이었다. 어느 노모님의 말씀이 나를 눈물짓게 하였는데, 자녀들의 전화나 소식이 오면 그 날 하루는 너무나 힘이 나고 즐겁다. 젊은이들이여, 그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인고의 세월과 눈물을 조금 더 일찍 깨닫게 되기를! 바쁘고 힘든 삶의 경쟁 속에서도 자주 부모님의 안부를 여쭙어보기를 나는 부탁하고 싶다. 그리고 꽃 한 송이나 선물은 고사하고 전화 한 통도 못 받아 섭섭하신 부모들이여, 그 자녀들은 우리시대와는 너무나 다른 팍팍한 삶속에서 몸부림치는 고통의 사람들이니 그 자녀들을 위해 이전 섭섭함을 물리치고 힘들지만 주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늘 "괜찮다, 별 일 없다!" 말하며 그 자녀들에게 집이 될까(?)봐서 고민하는 노부모들이여, 우리는 그들에게 집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이었다! 우리로 인해 저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세계의 발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셨다는 자부심으로 당당한 노후를 보내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부교계 기사판

인증현오 범죄 대응 매뉴얼 설명 세미나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문석호 목사)는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와 시민참여센터와 공동으로 '인증현오 범죄 대응 매뉴얼 설명 세미나'를 6월 17일(목) 저녁 7시 Zoom으로 진행한다. Zoom ID: 476 807 1656, Password: kace

▲문의: (718)279-1414, 309-6980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 22회 정기총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민승기 목사) 제 22회 정기총회가 8월 23일(월) 오후 2시부터 8월 25일(수) 오전 10시까지 필라델피아 몽고메리장로교회(담임 최해근 목사)에서 열린다. 둘째 날에는 에스터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다. 호텔은 Holiday Inn Lansdale이며 공항은 필라델피아 국제공항(PHL).

▲문의: (714)615-9191 민승기 목사, (267)577-0392 이대우 목사

뉴저지 '국가 기도의 날'

뉴저지교협 주관 뉴저지교계 연합 '국가 기도의 날' 행사가 6월 10일(목) 오후 8시 뉴저지연합교회(담임 고한승 목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제로 열린다. 강사는 호성기 목사(필라델피아교회).

▲문의: (201)394-7821 김동권 목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다민족 예배

퀸즈장로교회 러시아권 설립 5주년 기념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러시아권 설립 5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30일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김성국 목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다민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 다양한 민족이 가장 많이 사는 뉴욕에 퀸즈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다민족을 부르셨다"며 러시아권 회중 예배를 시작하지 5년이 된 것을 축하했다.

김 목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다민족이 예배

드릴 새 성전도 곧 완공 중에 있다"고 소개하고 "어려운 이민 땅이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높이는 다민족 서로 사랑하는 다민족으로 함께 걸어가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자"고 격려했다.

이날 설교는 러시아권 담임 사역자 송요한 목사가 "주님의 교회"(마16:13-20)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주인되시는 교회되기를 바란다"며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 그리스도와 함



퀸즈장로교회 러시아권 설립 5주년 기념예배를 시작하며 러시아권 찬양대가 서창하고 있다.

께 승리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예배는 러시아권 찬양대의 찬양으로 시작됐으며 영어권 담임 김도현 목사와 중국어권

담임 첸위지 목사가 축하했다. 또 글로리아싱어즈와 중국어찬양대의 화답 및 축하 찬양, 러시아권 무용단의 무용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성령충만 지혜충만 칭찬받는 자 돼라

뉴욕영안교회 설립5주년 인수집사 권사 임직예배

뉴욕영안교회(담임 김경열 목사) 설립 5주년 감사 및 인수집사, 권사 임직예배가 30일 주일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열렸다. 이날 인수집사 2명(김인수, 김창원)과 권사 3명(마태수, 최성애, 홍성희)이 임직했다.

담임 김경열 목사는 "뉴욕영안교회는 서울 영안교회를 개척해 성역 40주년 동안 땀과 눈물과 피를 아끼지 않으신 담임 양병희 목사님의 관심과 기도의 결실"이라며 "개척 5년 만에 좋은 군사를 만나 처음 임직자들을 세우게 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나라에 좋은 기둥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한다"고 인사했다.

예배는 예배백석 미주동부노회 서기 장규준 목사 인도로 기도 최창섭 목사(뉴욕에베에셀선교회), 성경봉독 문삼성 목사(호신장로교회 교육), 찬양 양광선 찬양사역자, 설교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봉헌기도 박현영 목사(퀸즈순복음교회) 순서로 진행했다.

김재열 목사는 "성령충만한 일꾼들"(행6:1-7)이라는 제목

의 설교에서 "본문에서 본 집사의 자격은 ①성령 충만한 자 ②지혜 충만한 자 ③칭찬받는 자"라며 "회개함으로 세상 경험 관록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며, 본받을 만하도록 품행이 좋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3가지를 충족하면 그 결과는 목사님의 영력이 충만해지고 교회가 부흥된다"고 전했다.

2부 임직식은 김경열 목사 사회로 임직자 소개, 임직기도 신우철 목사(가스펠장로교회), 서약, 인수기도, 안수례, 공포, 임직패 증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권면은 송병기 목사(뉴욕목양교회 원로), 격려사 양민석 목사(뉴욕그레이트백교회 담임), 축하 문석호 목사(뉴욕효신교회), 영상축사 양병희 목사, 축가 김영환 전도사, 축도 라첸체 목사(뉴욕제자교회), 식사기도 지교찬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송병기 목사는 계2:4 에베소 교회에 주신 책망을 받지 않도록 사랑으로 섬기라고 권면했다. 양민석 목사는 적은 능력으로 칭찬받은 빌라델비아교회를 언급하고 십자가 고난길이라도 그 후 부활의 영광을 바라라고 나가는 일꾼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며 격려했다.

문석호 목사는 아무나 받지 못한 직분을 받아 충성하면 장수 건강 재물의 복을 받는다고 축하했다.

(유원정 기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월례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주는 것이 복...더불어 사는 삶 살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5월 월례모임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유상열 목사) 5월 월례모임이 지난 26일 오전 10시 30분 퀸즈 침례교회(담임 박진하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유상열 목사는 바쁜 중에서도 참석할 임원들에게 감사하며 "후원자와 후원아동을 일대일 확인하고 후원 상황정보를 웹사이트에 일목요연하게 올리도록 하자"고 말했다.

1부 예배는 바이스라엘 목사 인도로 기도 이지용 목사, 말씀 방지각 목사, 합심기도, 축도 마바울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주는 것이 복이다"(행20:31-3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에 주어진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주면서 사는 사람, 얻어먹고 사는 사람,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사람, 빼앗고 사는 사람, 주는 사람이 부자다. 또 실험에 의하면 봉사할 때 면역체가 높아진다"며 "더불어 사는 게 행복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신앙 기본을 지켜 살며, 도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했다.

합심기도는 △회장 및 회원들을 위해 △결연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필름 비아 김혜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 장경순 박운정 선교사, 코트디부아르 김형구 이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제목으로 바이스라엘 목사가 인도했다.

2부 회의는 유상열 목사 사회로 전희수 목사의 개회기도 후 유상열 회장이 인사하고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가 사역보고 했다.

박진하 목사는 5월 26일 1/4분기 후원금을 송금했다며 2/4분기 후원금은 6월 중순에 송금하게 된다고 보고했다. 또 박 사무총장은 팬데믹으로 후원금을 중단한 경우가 많아 전화로 확인해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주 사역으로 제 3세계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으며 후원비는 1명당 월 30달러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breadngospel.org)를 참고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총신대 동남부지역 동문회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총신대 동남부지역 동문회 야외 모임

총신대학교대학원 동남부지역 동문회(회장 최종현 목사) 야외 모임이 지난 5월 24일 송중호 목사(79회)의 불우이웃을 위한 선교지인 Stepping Stone Mission Center에서 열렸다.

미션센터는 애틀랜타 교외 지역에 자리해 약 수십 에이커의 넓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션센터 도착 전 Scenic High Way를 통과해야 할 정도의 숲이 있는 곳에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회장 최종현 목사(79회) 인도로 서기 이재광 목사의 기도 후 나성균 목사(70회)가 창세기 19장 29절을 본문으로 "목회는 기도이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나성균 목사는 "목회자들은 설교, 심방, 행정의 세 가지를 중요한 목회요소로 삼고 목회를 하

지만 그 배후의 간절함 기도가 없다면 절대로 제대로 된 목회를 할 수 없다"며 "아브라함의 롯과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우리의 모범"이라고 말했다.

나 목사는 "기도의 세 가지로 사랑의 기도, 겸손의 기도, 끈기의 기도로 남은 생애를 살고 목회를 하자"고 결론을 맺었다.

(기사제공: 총신대 동남부지역 동문회)



뉴욕영안교회 설립5주년 인수집사 권사 임직예배를 마치고 임직자들과 참석 목회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일오전예배: 오전 2:0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1:20 영어권(중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뻗어 있는 우리의 장 목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걸음), Tel: (213)210-6890 2332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limie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안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유대계)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I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전파선교회(복음사) 성령사역: (월-금) 오전9시-오후4시(30분) 사역대상: 1. 영성사역 2. 교회성장 3. 목회자훈련 4. 가정사역 5.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회계기도원: 365일 24시간 온오프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714)646-9258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62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2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2623 MacArthur Ave. # 4 Montrose CA 91208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택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찬: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영성강이 위하여'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2021년 남가주 한인교회 VBS 일정발표

비대면, 현장, 하이브리드 등 형식 다양

날짜	교회	비고	문의
6/10-11	선한목자교회		(909)591-6500
6/15-18	오렌지한인교회	현장	(714)871-8320
6/15-19	샌디에고한빛교회	온라인	cho.wonhwa@sdbanbit.org
6/16-18	ANC온누리교회	온라인	(818)834-7000
	동부사랑의교회	현장(인원제한)	(858)243-5660
	주님의영광교회		(213)749-4500
6/18-25	선한청지기교회	주간 화, 금, 온라인, 대면	(626)913-6611
6/16-18	벨리연합감리교회	현장	dunatos80@gamil.com
6/16-20	사랑의빛선교회	온라인, 현장	(626)744-9191
6/18-20	대흥장로교회	장소: Elim Hot Springs	w2jina@gmail.com
6/20-22	나선순복음교회	온라인	(323)913-4499
6/21-23	OC한인교회	온라인, 현장	(714)329-3394
	인랜드교회	온라인, 현장(인원제한)	(909)622-2324
6/21-25	은혜한인교회	현장	(909)967-4626
6/22-25	토렌스제일장로교회		(714)975-1519
6/22-26	드림교회	현장	(626)793-0880
6/23-26	세리토스장로교회	온라인	(562)677-7777
6/24-27	LA사랑의교회	온라인	(213)386-2233
7/6-10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온라인	(858)279-9191
7/8-10	충현선교회	현장	(818)549-9191
7/13-16	베델한인교회	온라인	(949)854-4010
7/14-17	남가주동신교회	온라인	(714)680-9556
7/26-30	감사한인교회	현장	(201)994-5894
8/4-7	나선금관교회	현장	(310)973-5106

2021년 남가주 한인교회 VBS 일정이 발표됐다. 올해 VBS는 6월 11일 선한목자교회 부터 시작해 8월 4일 나선금관 교회까지 열리게 된다. 이번 VBS는 Walking with Jesus, Mission Deep Sea, Mystery Island "Tracking

Down the One True God", Treasured, Discovery on Adventure Island, Quest for the King's Armor 등의 주제로 열린다.

올해 VBS는 교회형편에 맞춰 비대면, 현장,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리게 된다. 지난해 VBS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열리지 못하거나 온라인으로 열린 바 있다.

(박준호 기자)

세계 선교 향해 나가는 교회되자

또감사선교회 설립 17주년 감사예배

또감사선교회(담임 최경욱 목사) 설립 17주년 감사예배가 지난 5월 23일 주일예배시간에 열렸다. 이날 설교는 최경욱 담임목사가 "당신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시122:1-4)"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최경욱 목사는 "창립 예배를 맞이하면서 가장 기초적인 교회가 무엇이며 어떻게 정의하느냐?"라고 질문한 뒤 "예수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고백이 있는 자들이 교회"라고 말했다.

최 목사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저주가운데 머물러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하나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믿음의 공동체는 첫째, 예배공동체다. 예배를 사모하는



또감사선교회 창립17주년 감사예배에서 최경욱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마음이 있기를 바란다. 둘째, 사랑의 공동체다.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바란다. 셋째, 섬김의 공동체다"라며 "17년 전 교회창립 때 마음 둔 것이 세계 선교다. 마음을 두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또감사선교회,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전진해나가는 또감사선교회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설교 후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었으며 최경욱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클레어몬트신학교 졸업식이 온라인으로 열렸다

한인 16명 졸업, 특별상 6명

2021년도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졸업식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졸업식이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졸업식에는 제프리 관 총장을 비롯해 한인 교수진들과 CST 교수진들이 참여했다.

전체 졸업생 91명 중 한인 졸업생은 16명이었고, 특히 한인 동문화 상은 목회학석사과정을 졸업하는 김 제시카와 이현재 학생이 받았다. 한인 졸업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D.Min: 강영, 김세우, △P.T.D.Min: 김귀호, 김다니엘, 남새배, 용환웅, 이상수, 이영진, 이정환, 채두식, 함은규, △M.A.: 이은혜, △M.Div. M.A.: 공문영, △M.Div: 김제시카, 나

네이슨, 이현재, 한편 이날 특별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특별상을 받은 한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Presidential Award for Academic Excellence (Doctor of Ministry): 이상수 △Hoyt Hickman Award: 남새배 △Jack Coogan Award for the Creative Use of the Arts in the Life of CST Community: 이현재 △Korean Alumni/ae Association Award: 이현재, △The Fellowship Seminary Award: 공문영 △The Jeanne Audrey Powers Award: 이은혜.

(정리: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축복이 회원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2집 평가서를 보낸 홍승주 시인의 글을 정지운 목사가 대독을 하고 박효우 목사, 김복림 화가, 박상진 회장이 각각 축사했다.

이날 시낭송 순서는 '봄이 오면'을 허철씨가 대독을 하고 김영수(음악가)씨가 '광화문 연가'와 Sanfranciscoe 연주하고 김창호 목사(기독교뉴스 LA지사장)가 기도한 뒤 '나의 살던 고향'을 합창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문학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당선: 김대웅(봄이 오면) 가작: 김영화(Mask) 장려상: 김종석(시각 장애인)의 아침) 임일청(봄을 기다리며) 김중소(쌍이 눈) 스수필-당선: 레베카 김(

죽음과 시작) 가작: 임일청(그리운 나의 외할머니) 김수남(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삶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다) 장려상: 박문규(대학입학과 부모님 반동지중후군) 문경구(용왕 찾아가는 길) △소설-김병학(어머니의 눈물) △신앙도서 독후감-당선: 조이정(공황을 구하는 기도) 헨리 나우텐(채) 이지혜 옮김.

(정리: 이성자 기자)



미주크리스천연합회 제32집 출판기념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서부교계 게시판

신간 '사모행진' 출간

박윤송 목사(엘피스패밀리사역원 대표) 신간 사모행진 출판기념회와 선교사 파송식이 6월 5일(토) 오전 11시 LA복음연합감리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213)700-9928

폴타임 사역자 청빙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한어청년부 및 행정담당 전임(Full Time)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신실하게 팀사역에 동참, 청년부 사역에 열정과 은사가 있는 교회행정의 전반적 이해가 있는 자로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예정)자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및 사역철학, 설교동영상 혹은 링크 1개, 졸업증명서 혹은 학위증명서다.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보내야하며 서류접수는 이메일(jaeko@thanksgivingchurch.com)로만 받는다. 서류마감은 6월 18일.

▲문의: (714)521-0991

유스그룹 사역자 청빙

라카나다 아름다운교회(담임 이현동 목사)는 다음세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있는 유스 그룹 사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영어소통에 문제가 없으며 중고등부 사역에 필요한 기획, 예배 및 심방, 여름 및 겨울 수련회와 KM사역과 팀목회, 스텝미팅 참여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와 최근사진, 다음세대에 대한 개인의 열정과 비전소개서, 추천서 1통, 서류 보낼 곳은 104 Berkshire Pl, La Cañada Flintridge, CA 91011.

▲문의: (213)519-2396, hechurchlee@gmail.com

미디어사역자 모집

홀러몬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에서 미디어사역을 담당할 영상간사를 모집한다. △자격은 미디어 사역에 경험이 있는 세례교인 1명이며 △담당업무는 주일 1-2부 예배 방송, 수요일 예배 방송, 교회 관련 예배/행사 영상제작, 교회방송 & 음향장비 관리 및 점검이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fpchurch9010@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201)470-0932



UMC 한교총 전국 평신도연합회 회원들이 허가야 감독 집무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한미연합회 포함 20여 지역사회단체

LA통합교육구, 아시안중요범죄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한미연합회 및 20여개 지역사회 단체들은 LA통합교육구 소속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시안 인종 차별, 중요 범죄와 반아시아 정서를 막기 위한 필요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5월 24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올해는 "모두가 중요합니다(Everyone Counts)" 결의안이 수립된 지 2주년이 되는 해다. 한미연합회(KAC) 유니스송 대표를 포함한 아태계·하와이주민(AANHPI), 아랍·중동·무슬림·남아시아인들은 이 결의안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 2018년 12월부터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이하 LAUSD)와 협업하고 있으며, 이날 기자회견은 다음의 주요 사안을 발표하기 위해 이뤄졌다.

1)아시안 아메리칸 학생들의 등록 감소를 조래하는 일련의 반아시아 공격이 최근 급증하는 가운데 아태계 아메리칸 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위 결의안의 더욱 강력한 시행을 재확인한다. 2)최근 일련의 반아시아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요구에 부합하도록 약속을 강화한다. 또한 운영위는 급증하는 아태계 대상 폭력 대응을 위해 LAUSD 다중언어/다문화 교육부장 리더 아코스타 스테펜스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이 결의안 시행에 더해 실시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a)학교복귀 후 API의 요구를 충족하는 직원 및 교사대상 맞춤

형 교육을 개발 또는 조정하고, (b)이런 과정은 아시안 정의진흥회 및 파트너 지역사회 단체들과 제휴로 이뤄져야 한다 (c)교육·훈련을 시행할 수 있는 학교들이 직원 및 교사훈련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도록 지시 사항을 마련하거나 인센티브 제공 등 그밖에 교육·훈련의 동기를 줄 수 있는 유인책을 고안하라 (d)API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포함한 각종 폭력행위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투명하고 명확한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징벌적이거나 치안유지만을 위하던 관행과 달리 학생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정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라.

금일 기자회견은 LAUSD 건물 정문에서 열렸으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생중계됐다. 유니스송 한미연합회 대표는 "KAC는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료 비영리 단체, 지역 사회 지도자, LAUSD 관계자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오늘 기자회견은 아시안 중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2019년 5월 자 "모두가 중요합니다" 결의안에 요약된 노력의 또 다른 단계에 불과하다"라며 "우리는 교사들과 LAUSD 관리자들이 잠재적 사건 사고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훈련 받기를 원하며, 이에 대해 LAUSD가 훈련을 늘리고 있다는 것과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더 명확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만일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증오 사건, 사고의 위험에 처했다면 한미연합회(KAC, 213-365-5999)로 전화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한미연합회)



GMU는 미래사역을 위한 신학교 정보통신 교육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백서발표를 했다

신학교 정보통신 교육커리큘럼 개발위해

그레이스미션대, 설문조사 결과 미래사역 백서 발표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는 5월 27일 미래사역을 위한 신학교 정보통신 교육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릴리 제약회사의 릴리프로젝트 팀 주관으로 실시됐으며 조사기간은 지난 5월 3일부터 13일까지다.

이번 프로젝트의 연구책임자인 제임스구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는 ATSA가 릴리인드우먼트 그랜트의 일환으로 준비한 Pathways for Tomorrow Initiative라는 신학교 미래 발전을 위한 계획의 한 분야인 신학교 정보통신 교육 커리큘럼 개발을 위해 하게 됐다"며 "참여자들의 소중한 데이터는 GMU 정보통신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북음주의 미디어 사역의 향방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GMU의 릴리프로젝트 주관 첫 번째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5만분의 그랜트를 받았으며 GMU는 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5개 프로젝트 중 하나다.

제임스구 교수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기술의 발달은 교회 선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글들이 당시에 발명된 인쇄 기술을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보급됐고 영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발명된 인쇄 기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며 "오늘날 교회들이 인터넷과 정보통신, 미디어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하기 어렵고 IT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교회사역자를 구하기도 어렵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사역자를 양성하기 위해 신학교에서의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GMU의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됐다. △조사대상: 일반목회자, GMU재학생, GMU졸업생 △조사지역: 미주지역 및 해외, 한국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기간: 2021년 5월3일 - 15일 △조사기관: GMU 릴리프로젝트 팀 △표본 추출: 북음주의 기독교인/지역/연령/성별, △자료처리: 구글데이터, MS데이터.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 구 교수는 "교회에서 사역중인 미디어 담당 사역자는 5명 미만이 대부분인데 사역자가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았다"며 "미디어 사역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았는데 전문 인력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신학교에서 개설하기를 원하는 정보통신 관련 과목은 △온라인 방송 및 라이브 기술 △Zoom 컨퍼런스 등 화상서비스 관련기술 △그래픽디자인 관련기술 △동영상비디오 편집기술 △교회 홈페이지 관리기술이었다.

제임스구 교수는 "이번 설문결과를 통해 GMU는 릴리프로젝트팀으로부터 100만불을 지원 받아 미래사역을 위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다"며 "팬데믹 이후 교회사역에서 미디어 사역은 필수가 됐다. 이를 위해 스튜디오와 전문 랩실 등 시설을 마련하고 교육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9면에서 계속>

송중록 회장의 사회로 드러진 1부 감사예배는 최학량 목사 기도와 진복일 선교사의 특송이 있는 뒤 김대준 목사(LA 비전교회)가 말씀을 전했다.

김대준 목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혜"(시96:1-13)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탐독하면 다윗의 영성이 높아져서 여호와의 송축하도록 권고하는 장면이 나온다. 문인들은 글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기를 갖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고 설교했다.

이어 송중록 목사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최선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손문식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2부 문학행사에서 정지운 목사(이사장은)는 인사말을 통해 "문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참석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건강한 신학 세우고 기독교 전통 회복하자”

기성 제115년차 정기총회, 신임 총회장 지형은 목사

지형은 성락성결교회 목사가 26일 제115년차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됐다.

지 신임 총회장은 기성 총회가 이틀째 열린 경북 경주시 보문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취임사를 통해 “우리는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이것을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며 “복음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사회적 연관성을 갖고, 건강한 신학을 세우며 기독교 전통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목회자들이 지식 정보화 사회에 잘 대응하며 복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총회 대의원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지 총회장은 서울신대 신학과의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독일 보훔대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일보 종교부장과 논설위원, 남북나눔 이사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부총회장에는 김주현 목포북교동교회 목사가 투표 없이 당선됐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한국성결신문 사장을 지낸 장광래 서울 헤브론교회 장로, 서기와 회계에는 정재학 부천지산교회, 김정호 홍성 구성교회 장로가 각각 선출됐다. 부서기와 부회계에는 투표 끝에 장신의 인천 송림교회 목사, 임진수

울산 양산교회 장로가 당선됐다.

예초 총회장 등 임원진을 선출하는 선거는 전날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성진 열방교회 목사의 부총회장 후보등록 취소를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연구위원회(헌연위)가 상반된 해석과 주장을 제기하면서 하루 연기됐다.

기성은 전날 북한선교위원회를 신설했으며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교단의 기초 신앙문서로 공식 채택했다. 기성은 코로나19 확산으로 2박 3일 예정이었던 총회를 1박 2일로 단축하며 마무리했다.

기도/칼럼



박현승 목사 (토론토 서부장로교회)

우주여행

우주여행 시대가 온다고 하더니, 이제 곧 시작되는가 봅니다. 아마존의 최고경영자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블루오리진은 첫 번째 민간인 승객을 태운 뉴세퍼드를 7월 20일 발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날은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승객 6명을 태우고 고공으로 치솟는 로켓은 지상 100Km 이상으로 날아오릅니다. 우주에서 보는 천체는 장관일 것입니다. 지금 136개국에서 5,200명이 응찰을 했는데, 좌석 1석 가격이 현재 240만 불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최종 낙찰 가격은 훨씬 더 오를 전망입니다.

우주여행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세대의 이야기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행 한번 가기 힘들고, 비행기 타는 것도 쉽지 않는데 우주여행을 하다니 말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많은데, 수백만 불을 들여서 하늘 여행을 한다고 하니, 먼 나라의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우주비행선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는지 궁금합니다.

다윗은 이미 3000년 전에 우주여행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시편 8편에서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잠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까. 주님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자리를 정해준 달과 별들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일월성신의 세계를 보고 노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만물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똑같이 우주여행을 했지만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은 “이 넓은 우주에 올라왔지만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우주비행사 존 글렌은 “너무나 아름답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만들 수 있었는가!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하였습니다.

비록 값비싼 우주여행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여행을 통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놀랍고 신비한 해달별을 바라보고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 bible66@gmail.com

바른 신학 붙잡고 교단 미래 설계

내달 14일 합신총회 40주년 기념대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신(총회장 박병화 목사)이 올해로 교단 창립 40주년을 맞아 ‘작은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개척교회의 실질적인 자립을 돕고, 급변하는 세상 속 교단과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예장합신은 다음 달 14일 열리는 ‘합신총회 4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화평교회(이광태 목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예장합신은 이 자리에서 지난 40년 동안 이어온 교단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교단의 정체

성과 명예를 재정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바른 신학’이란 교단이 추구해온 가치가 잘 유지되고 올바르게 행해지고 있는지 성찰하겠다는 취지다.

대회장을 맡은 박병화 총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대회를 열고자 한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애’라는 교단의 정체성과 책임을 확인하며 이 땅 한국교회에 ‘왜 합신이어야 하는가’를 묻고 답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작은 교회를 도와 건강

하게 세우는 일에 소속 교회 모두가 힘을 모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40주년 기념대회의 주제는 ‘급변하는 세상, 바른 신앙으로 새롭게’(Post Covid19, With Hapshin)로 잡았다. 준비위원장 김원광 부총회장은 “교회가 코로나19 등으로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는 개혁주의 신학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돌아보고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설명했다.

대회에는 고신대 명예교수 이상규 박사가 ‘합신의 역사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안상혁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합신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강연한다.

대회 기획위원장 김명호 목사는 “총회 내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을 하며 재정적인 지원 외에 작은 교회를 지속해서 섬기는 일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면서 “특히 ‘작은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를 알리는 ‘회복의 시간’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작은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는 재정 목회 교육 세 분야로 나눠 개척교회에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역이다. 우선 50개 교회를 선정한 뒤 10명 안팎의 각 분야 전문 멘토가 교회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교단 차원에서 산하에 작은교회활성화위원회를 두고 전문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코로나상황서 할 수 있는 건 울며 기도하는 것뿐”

예장 합동 제 58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전국 각 노회 대표 목사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예장 합동 소강석 총회장은 31일부터 2박3일간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2박3일간 진행되는 제58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목장기도회)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울며 기도하는 것 밖에 없다”며 “이번 기도회가 교회와 우리 교단, 한국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기도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 총회장은 목장기도회 주제기도 한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통해 선진들이 흘린 피와 땀과 눈물의 헌신과 기도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 총회장은 “합동은 오직 순

혈적인 보수신학 하나 지키려고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고, 교단의 적통성과 범통성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우리 교단 선진들은 현실적으로는 허허벌판 황무지로 나와야 했다”며 “그럼에도 기도의 눈물을 뿌리며 교단을 일궈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느냐”며 “어느 때부턴가 회생과 헌신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기도와 영성 운동보다는 정치가 앞장서게 된, 교조적인 교단이 됐다”고 지적했다.

소 총회장은 합동 교단이 이렇게 된 데에는 처음 사랑과 처음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혹시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비난받고 문이 닫혀 버린 건 하나님을 향한 감격, 예배를 향한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가”라며 “하나님은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가 여겨워서 누군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말했다.

소 총회장은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의 잘못 때문 아니겠느냐”며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는 것 밖에 없다. 강단에 앞드려 울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도회에선 총회 기념사업 일환으로 제1회 총회 훈장 수여식이 거행됐다. 총회 정체성과 개혁신학 수호 및 선교기반 구축 등의 공로가 인정된 개인 9명과 단체 3곳이 훈장을 받았다.

통반는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지난해 7월 설립됐다. 중독에 방을 위한 캠페인·교육·문화·정책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정예본은 특히 청소년의 중독 문제에 중점을 둔다.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면 우울증, 자살 충동, 학업 부진, 신체성장 저해 등 성인보다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조현섭 대표는 “게임과 인터넷 사용으로 자녀와 씨름하는 학부모들과 상담하면 중독문제

청소년들 주식·도박 중독 급증...”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한국교회에 호소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수업이 지속되면서 미디어 사용량이 증가한 청소년의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정예본·이사장 홍호수 목사, 대표 조현섭 총신대 교수)는 26일 서울 양천구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청소년의 중독예방 운동에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정예본은 알코올 미디어 게임 성 흡연 등의 각종 중독으로 고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Midwest University 와 함께 동역할 인재를 찾습니다 (부설- MIRI 연구소,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국방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문화예술대학원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20 혹은 J-1 Visa
-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 교수 1. 경영, 마케팅, 리더십 분야의 박사 학위 소지자
- 2. 신학, 선교, 목회,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3. 국방, 항공, 상담 분야와 관련한 박사학위 소지자
- * Full time or Part time - Online Teaching, 전공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 할 수 있는 분
- 사역 개발 분야 - 산학협력, 인력개발, IT, 마케팅, 항공, 어카운팅과 관련된 학사학위 이상자
- 자격 1. 미국에서 High School 과 College 졸업 예정자 혹은 졸업자
- 2.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 3. 영주권 스폰 가능
- 4. 관련분야 경력자 선호
- 제출서류 : 이력서, 대학이상 성적 증명서, 자기 소개서
- 제 출 처 : jp@midwest.edu

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3)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선교(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과 아담스카운티 교도소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었다.

나는 아담스카운티 교도소 재소자들의 신앙 간증을 모아 “최고의 성인들(Maximum Saints)”라는 재소자 간증집 시리즈를 출판했다. 그 첫 번째 책인 “최고의 성인들은 숨지 않는다(Maximum Saints Never Hide in the Dark)”에는 재소자들이 교도소 예배 때 나는 간증들을 실었다. 그 간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는 재소자들을 상담할 때 자신이 어떻게 치유가 되었는지를 글로 써볼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많은 재소자들이 글을 쓰며 치유를 경험한다.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 프로그램 맡은 직원들은 TPPM에 대해 협조적이었으며 지원

티 교도소 봉사자들이 헌금을 하여 출판에 힘을 실어 주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아담스카운티 교도소는 당시 1,300여 명의 재소자들이 있었다. 우리는 TPPM에서 가지고 있는 모금 액수와 우리 교도소 재소자수에 맞게 1,500권 정도의 책을 출판하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너의 비전이 너무나 작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교도소 역시 신앙서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10,000부를 작성하고 다시 모금을 시작했다. 그리고 책의 출판에 자금이 충분치가 않았다. 나는 연합감리교회 웹사이트에 그것을 알렸다. 그 후 한 여성

상처를 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들을 도우며 그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그의 놀라운 간증 또한 “최고의 성인들” 시리즈 안에 들어있다. 간증집을 받은 다른 교도소 재소자들, 그곳 교도소 목사님, 그리고 책을 읽은 교도소 직원들도 모두 재소자들의 간증집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 한 여자직원은 나의 사무실에 찾아와서 간증집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다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했다.

보험금

했다. 하지만 재소자들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신앙 서적을 공급 받아야 했다. 나는 출판을 앞두고 있을 때면 한 책 당 열군데 정도의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도소 문서선교에 있어서 모금은 늘 난제였다. 멜라니 그레고리와 크리스 라스는 자신들이 교도소 프로그램 디렉터를 맡았을 때 교도소 문서 선교를 위한 출판자금을 기부해 주었다. 하지만 그것도 한번으로 그쳤다.

TPPM이 시작된 지 3년이 되었던 2008년, 남편이 갑작스럽게 차가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그 당시 나는 그의 앞으로 된 생명보험금이면 직장에서 은퇴를 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다. 재소자들에게 더 많은 책을 나눠줘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은 보험금을 나를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책을 사 볼 형편이 안 되는 재소자들을 위해 사용할 것을 말씀하셨다. 주님은 내게 나의 삶이 이제 일년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살라고 하셨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며 살기 시작하자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면서 더 많은 자유가 느껴졌다. 나는 그 보험금을 재소자들을 위한 책을 출판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했다.

yonghui.mcdonald@gmail.com

나는 지인들과 함께 교도소 안에는 재소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한 책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6개월 회의를 했다. 그러던 2005년, 우리는 변화프로젝트 교도소문서선교(TPPM)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신앙서적을 출판하고 교도소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책을 쓰는 일과 함께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이 사역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변화프로젝트 교도소문서선교(TPPM)의 책들에는 재소자들의 간증이 많이 실려 있다. 우리는 이점을 고려하여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간증이 책으로 출판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재소자의 사인이 들어간 동의서를 만들었다. 이것은 TPPM

더불어 자신의 글을 기부한 재소자들은 그것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으며, 법정판결에 관련해서 그 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소자들의 글은 단지 다른 이들을 돕는 데만 사용된다. 교도소 프로그램 기획자인 풀러씨는 TPPM 동의서를 아담스카운티 교도소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리고 변호사의 승인을 받았고 TPPM은 정부에서 비영리단체로서의 법적 승인을 받았다.

을 아끼지 않았다. TPPM 봉사자들은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해 타이프를 치기 어려운 나를 돕기 위해서 많은 간증들을 타이핑해주는 일을 해주기도 했다.

교도소 소령인 쉬플리는 TPPM을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알려 달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자금이 필요함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의 교회에 알려져 출판을 위한 모금을 했다. 그 밖에도 여러 교회에서, 그리고 아담스카운

지원봉사자가 트럭을 가져와서 10,000권의 책을 운반할 수가 있었다.

문서선교에 대한 반응은 획기적이었다. 많은 재소자들이 “최고의 성인들”을 읽으며 자신들의 삶에 새로운 방향을 잡았다. 사탄 숭배자로서 자살 충동에 시달리며 폭력적이던 티모디 갈시아는 간증들을 읽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는 “최고의 성인들”을 읽고 구원을 받은 것이다.

티모씨는 다른 사람들에게

처음에 “최고의 성인들” 간증집을 출판할 때는 그 책을 시리즈로 계속 출판하려는 계획이 없었다. 그러나 간증집을 통해 많은 재소자들이 도움을 받고 변화되어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자 나는 더 많은 간증들을 얻어서 출판하게 되었다. 그러나 책을 출판할 때마다 출판 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나는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여 교도소 문서 선교를 소개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출판을 위해 한번 정도 기부

재소자 신앙간증집 ‘최고의 성인들’ 출판되자 큰 호응 남편 교통사고 생명보험금을 책 출판 비용으로 사용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원 스토리 9강 / 아브라함(3-1)(창세기 18-25장)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의로, 아브라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사48:9/겔20:44/말1:11) 하나님의 열심으로 진행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과 그의 사이에 있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징계를 받은 직후에 그의 어떠한 의와 공로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은 죄악이 심히 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오신 하나님을 영접합니다(창18:1-8).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창18:10)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많이 늙었고 심지어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지만(창18:11)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었고(창17:17) 사라도 웃었지만(창18:12)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불가능한 출생은 앞으로 삼손(삿13:2-5)과 사무엘(삼상1:5,19,20)을 지나 세례 요한(눅1:5-25, 57-66)과 예수 그리스도(눅1:26-35, 2:1-7)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나실인(민6:1-8)의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공과 의의 나라

오히려 자신의 영적 패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창18:17). 그리고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창18:18)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마1:1)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실 ‘복음’의 ‘복’인 것입니다(갈3:8,9). 그리고 여호와와 도를 지켜 ‘의’와 ‘공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인데(창18:19) 이 나라는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다윗(삼하8:15/대상18:14)과 솔로몬(왕상10:9/대하9:8)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지만 소돔 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후에 베드로는 롯을 의롭다 했지만(벧후2:7) 이 역시 노아와 같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 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것입니다(사 9:1-7). 이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을 의인의 멸망당함을 놓고 하나님께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청에 의인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마침내 의인 10명만 그곳에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창18:22-32). 아브라함은 up and down을 반복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듣고 의인을 위해 간청할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사41:8/약2:23). 하나님은 두렵지만 두려움 중에도 친밀함이 있고 사랑함이 함께하는 그 ‘경외함’의 지점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 10명만 있어

은 상대적인 것이었을 뿐 롯 자체가 의인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하나님이 보내신 두 천사는 소돔에 이르고 롯의 영접을 받아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창19:1-3). 그리고 그 밤에 그 성의 백성들이 어른과 아이들을 막론하고 모여들어 롯의 집을 에워싸고(창19:4) 롯에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으나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고 합니다(창19:5). 주의 사자, 주의 천사들의 모습이 남자였을 텐데도 ‘상관하리라’는 말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그들과의 성적인 관계 즉, 이성이 아닌 동성의

성적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패역의 역사는 사사기에 서도 반복될 것입니다(삿19장).

성경은 허용된 부부 사이를 넘어 이웃을 탐하는 자들과 이성을 넘어 동성을 탐하는 자들 그리고 이젠 사람을 넘어 짐승과 관계하는 자들을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출22:19/레 20:10,13,15,16). 이러한 간음의 현상은 영적 간음 즉,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돔 성 사람들은 단지 롯의 집 주권으로부터가 아닌 원근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인 줄 알았던 그 소돔 성이 세상의 화려함 속에 죄의 창성함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의인 10명이 아닌 소돔의 멸망을 막을 의인 1명도 없는 그 성은 불 심판을 받습니다(창19:24,25). 롯의 가족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사위들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지지만 그들은 그 구원의 소식을 농담으로 여겨버립니다(창19:14).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즈음이었을 때 아브라함은 99세이니 롯이 소돔성에 머문 지 대략 2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다고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 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는 가족에 대한 성경 기록이 없었으나 이젠 아내와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자신의 모든 기반뿐 아니라 마음이 있는 그곳을 잊지 못해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창19:26). 또한 롯의 두 딸들은 후손을 이어가자는 목적으로(창19:32)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아들들을 낳습니다.

롯의 딸들이 롯을 통해 낳은 이들은 바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웃 나라 모압과 암몬의 조상들입니다(창19:36-38).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데려온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들과(창25:12-18)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자손들과(창36장) 더불어 모압과 암몬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울무가 될 것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 듣고 의인 10명에 대해 간구한 후 그곳에서 애굽 땅 근처인 네게브 땅으로 옮겨 ‘그랄’ 땅에 머무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곳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나안 중심지를 벗어나 외곽 지역으로 옮긴 아브라함은 ‘이 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창20:11)는 인간적인 생각에 다시 한번 아내인 사라(창26:12)를 누이라고 속입니다(창20:2). 이 사건은 다시 하나님의 중재하심으로 정리가 되고(창20:3-7)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재물과 짐승과 종들을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얻게 됩니다(창20:14-16).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아브라함의 본질적인 부분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그리고 동역자로 인정해주시는 것임을 성경은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 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서는 매 순간 죄의 가능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우리 역시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때 죽어야 했던 죄인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전9:27).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전15:31).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자기 부인, 십자가 집은 날마다 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9:23).

hfamilyfa@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그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시18:6-7)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분만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되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더욱 친밀하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특별히 6

절 하반 “그전에서 들으셨다”는 것과 “그 앞에서 부르짖음이 들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께 드리는 기도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개인적으로 직접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끈기 있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외부 환경이나 내부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시18:7-8)

지금 눈앞에 어떤 도움도 보이지 않고 어려운 일이 계속될 그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찌어다” 감감할 때 흑암 중에 행할 때 더욱 더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7

절부터 15절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기적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땅도 진동하고 쇠창살을 끊고 옥문을 열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을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수 기도하는 성도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시18:9-12)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사랑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은 마치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려는 사람처럼 신속하게 온 힘을 다해 움직이십니다.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들을 파멸시킵니다. 정말 장엄하고 멋진 장면입니다. 9절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뽕뽕한 구름 가운데

서 원수들을 물리칩니다. 주목할 것은 다윗이 기도하기 전에는 심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니 놀랍게 역전되어 어 느새 그의 원수들이 이제 곤경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그림”이란 하나님의 전차와도 같은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고 날아오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목 나를 견져내셨도다(시18:11-16)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원해주신 일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실 때 마치 천지가 진동하듯 위엄차게 임하셨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고, 그룹을 타고 날으시며 그 앞에 광채로 인해 뽕뽕한 구름을 지나며 우박

과 솟발을 내리시고 뇌성과 번개를 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활을 쏘셔서 원수들을 흠시키고 번개를 내리셔서 원수들을 다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그리고 마치 손을 뻗어서 끌어 올리시듯이 위험에서 견져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이 보고 느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금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시18:17-19)

다윗은 원수들이 더 힘이 강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의지하게 됐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견져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18). 나의 의지가 되셨다는 뜻은 Supporter가 되셨다, 나의 도움, 나의 후원자가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

나님을 의지하고 그 분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다윗은 아돌람 굴속으로 광야로 도망 다니다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 이스라엘의 왕이 돼 보좌에 올라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토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주시며(시18:20)

다윗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을 알고 더욱더 말씀을 좇아 스스로 삼가며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

총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살면서 받는 상급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따라 상 주신다는 뜻은 내 힘으로 내가 공적을 세운 것으로 상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 최선을 다한 삶을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0)

하나님이 세 번 사용하신 다니엘

이제 다니엘 4장으로 넘어가보자. 다니엘 4장은 이전의 장들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 다니엘 3장은 세 친구들의 이야기이고 다니엘이 등장했던 2장은 다니엘이 약 18세였을 때 일어난 일인 반면, 다니엘 4장에는 이제 그는 어엿한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다. 우리는 다니엘서가 그가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주로 쓰여진 것으로 착각하지만 사실 다니엘서 12장 중에 다니엘의 아동/청소년기를 언급한 것은 다니엘서 1-3장뿐이다. 다니엘서는 3/4는 주로 성년/노년시절에도 한결 같은 그의 믿음에 대한 기록이다.

벨론이 신흥 강호였던 페르시아에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린 것!



이희갑 목사
(아주사파서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또한 성경 1189장 중에 다니엘 4장은 유일하게 비유대인, 이방인에 의해 쓰여진 장이다. 저자는 바로 느브갓네살왕이다. 그가 가진 모든 권력과 부귀, 명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나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높이다가 다니엘의 경고를 받고도 그는 12개월 동안 아무 변화가 없자 하나님은 그를 벌하신다. 기한이 차매 그는 깨어나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그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를 자신의 전 영토에 알리게 한다. 바로 다니엘이 그를 변화시켰다.

바벨론은 느브갓네살 2세(유다를 멸망시킨)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으나 그

의 후대 나보니두스왕은 그의 아들 벨사살이 섭정하도록 함으로 너무도 쉽게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가장 무능했던 벨사살왕은 페르시아 고레스왕이 침략한 것도 모른 채 향락을 즐기다가 고레스왕에게 죽음을 당하게 된다. 이때가 바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썼다는 다니엘 5장의 사건으로 이날 밤에 벨사살은 고레스에 의해 최후를 맞게 된다.

그렇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였다. 필자는 그 원인을 바로 자기 정체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정체성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을 세 번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고레스왕은 바로 그 이후 통일제국을 수립하고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게 되지만 곧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 사자굴 속으로 던져진다(놀랍게도 이때 그는 81세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신 다니엘을 보고 고레스왕은 크게

이방 최고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70년 포로 후 귀환 역사가 이뤄지게 메시아의 등장을 알 수 있게

첫째,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이방 최고의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다니엘을 사용하셨다. 당시 지구상 최고의 나라였던 바벨론의 느브갓네살왕은 두 번에 걸쳐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한번은 다니엘 2장에서 꿈과 해석을 해준 후 왕이 하나님은 찬양하게 되고 또 한 번은 바로 4장 34-37절에서 그랬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곧 이어 유다 민족의 귀환에 대한 직령을 발표한다. 고레스왕이 무슨 연유로 직령을 발표했을까?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다. 그러나 고레스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두 번 체험했다.

그런 후 바벨론이 페르시아 고레스왕(다리우스와 고레스는 같은 인물임)에 의해 멸망당하고 이후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수석총리로 임명이 된다. 그러나 시기하는 사람들의 모함으로 사자 굴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이때 고레스왕이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는 계기(단6:25-27)가 된다.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 가장 강력한 왕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참으로 놀랍지 아니한가? 감격스럽다.

손가락의 글을 해석한 다니엘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사자굴 속에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존귀를 경험한 것이 직령을 내리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고레스가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다니엘을 사용하셨음에 틀림없다.

둘째,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유다 민족의 70년 포로 후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우리는 느브갓네살왕이 유다를 침공하여 멸망시키고 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는 70년 후에 그들이 돌아올 것으로 예언을 했지만, 누가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몰랐다. 그러나 그 즈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바

셋째, 바로 다니엘을 통해 메시아의 등장을 알 수 있게 했다. 왜 다니엘은 당시 귀환하지 않았을까? 15살 때 포로로 잡혀간 이후 조국 산천을 그는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왜 그는 돌아오지 않았을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록하고 후세에 알려라는 하나님의 분부가 있었지 않았을까?

다니엘은 18살 때 꿈을 꾸었다. 꿈에서 인간 문명의 흥망성쇠가 끝나면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 그 비밀은 점점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다니엘 7:13에서는 하늘로부터 인자가 내려옴을 그는 보았다.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크로스웨이...의료 고민 풀어드립니다

사랑의 공동체 세워나가는 크리스천 의료상조회

의료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크리스천 한인 비영리 단체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Crossway Health Share, 이하 CHS, 회장 김경호)가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과 저렴한 비용으로 한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CHS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기초로 의료비 발생 시 회원들 간 물질적, 영적 나눔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크리스천 의료상조회이다. 김경호 CHS 회장은 "의료비 나눔 사역은 서로의 짐을 나눠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진정한 사역"이라며 "저렴한 회비로 최고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유일한 회원 간의 의료비 나눔이 가능하도록 특허를 받은 '쉐어링 은행 시스템'(Sharing Bank Account)을 사용한다.

회원들은 CHS와 파트너십을 맺은 은행을 통해 의료비 나눔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의료비 발생 시 이 계좌를 통해 회원들간 직접 의료비

한국의 16개 메이저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춘 한인 최고의 비영리 의료상조회 기관이다.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 프로그램은 3가지로 컴플릿, 어드밴티지, 베이직으로 나뉘며 1인 월 40달러에서 195달러까지 본인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 컴플릿과 어드밴티지 프



크로스웨이 김경호 대표(왼쪽)와 위화조 마케팅 책임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의미회복이 우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삶의 총체적 사역 필요

집했다.

김경호 CHS 회장은 "한인 크리스천들에게 새로운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 프로그램을 소개하게 돼 정말 감사하며, 아직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의료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며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를 통해 보다 많은 한인들이 의료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저렴한 회비로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자 한다"고 전했다.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의 가장 큰 특징은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에 의한 벌금 면제기관으로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이 요구되어지는 주(현재 캘리포니아, 뉴저지, 콜롬비아,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로부터 벌금이 면제된다.

또 기존 단체와는 달리 의료비 발생 시 회원들이 직접 의료비를 나눌 수 있는 미국 내 몇 안 되는 의료상조회로,

나눔이 자동 실행되게 된다.

회원이 의사나 병원 방문 시 멤버카드를 보여주면 의료비 발생 시 자동시스템(Direct Billing System)에 의해 의사나 병원에 의료비가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고급 자동전자의료비 청구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수동프로세스로 회원들이 의료비를 직접 협상하거나, 의료비 청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부담이 없게 된다.

모든 회원들은 최고 50%까지 처방약값을 Universal RX를 통해 할인 받을 수 있다. CHS 온라인을 통해 등록할 수 있고 CVS, Walgreens, Mariano's, Costco, Osco-Drug, Walmart 등 전국 5만5천개 이상의 약국에서 최대 50%까지 처방전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쉐어웨이 엠엔티를 통해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그램은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처방약, 응급실, 출산, 입원, 수술, 예방검진이 가능하며, 베이직 프로그램은 수술, 입원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회원에게는 UNIVERSAL RX 프로그램을 통해 약값을 최대 5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회원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얻고, 나아가 선한 일을 함께 나눔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일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 가입 설명을 원하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는 917-306-7201(위화조 마케팅 책임자), www.crosswayhealthshare.org로 연락하면 된다.

(기사제공: 크로스웨이 의료상조회)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3.가정선교의 의미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의 최고 걸작품인 인간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신 후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1:28)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최초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의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간교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

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청개구리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가정에서는 심각한 가정문제가 양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과 목회적 대응이 가정선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선교란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참 의미를 회복하기 위한 그리스도인의 총체적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정선교의 3가지 참 의미를 말씀드리고자

으로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거룩한 제자, 성도가 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할 필수사역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따라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참다운 의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의미회복이 우선 하나님 나라 확장과 삶의 총체적 사역 필요

와 타락하므로, 저주받고 실락원하게 되었고, 축복 받아야 할 가정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담이 범죄와 타락하므로 가정에 저주와 불행이 초래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신 후 부활 승천하시므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가정선교적 면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제1대 가정선교사의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범죄한 인간들의 죄를 구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가정을 회복시켜주셨다고 보는 것이 가정선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가정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 즉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고 가정에 대한 5가지 축복(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창1:28)을 주신 후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창1:31)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은 부족함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가정 창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정의 신성성, 완전성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과 인간의 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가정선교라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입니다.

가정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믿을

셋째, 총체적 사역입니다.

가정선교는 단순한 행사나 프로그램의 제공이 아니라 파괴된 가정을 회복하고 영적 결손가정을 복음화 하기 위하여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이해, 기독교 교육학과 목회상담학적인 접근으로 시도되어야 합니다. 가정선교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가 안고 있는 가정 시급한 총체적 사역입니다. 신학이나 교리의 강조만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적으로 구체화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으로 성숙되어가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또한 가정선교는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과 교회 그리고 부부와 목회자의 총체적이고 연합적인 사역이기도 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지용수 목사 초청

교계연합 뉴스타트 성령 부흥 축제

일시: 2021년 | 6월 9일(수) | 오전 9시

연합집회 강사

주강사: 지용수 목사
세미나강사: 김영길 이종용 박성근 한기홍 박헌성 민종기 신승훈 목사

장소: 주님의 영광 교회 (신승훈 목사)



지용수 목사



김영길 목사



이종용 목사



박성근 목사



한기홍 목사



박헌성 목사



민종기 목사



신승훈 목사

행사 1)목회자 선교사 교계지도자 가족 초청 행복목회세미나
"지성과 영성과 미래성을 깨우는 행복목회"
(회비 100불/생명의 양식선교연구원에서 대납)
*6월9일 수요일 오전 9시 부터
2)교계연합 교회지도자 및 평신도 초청 부흥 축제(수요밤 7시)
"코로나극복 감사 교계 연합 한마당 성령 축제"
* 연합집회 후 목회연구비 전달식이 있습니다.

조직

대회고문: 박희민 정시우 송정명 류당열 한기형 김인식 김영대 정영목
준비위원: 민승기 진유철 박효우 정요한 엄규서 심진구 박종대
명예 대회장: 정시우 목사
대회장 : 신 승훈 목사
준비위원장 : 지용덕 사무총장 :강태광 총무:서종운 서기:진석호
주최: 미주한기부 교계연합회(지용덕)
공동주관: 생명의양식 선교회, 아프리카 선교회, 캄보디아 선교회

협력기관
미국 기독교 총연합회(민승기목사) 남가주교회협의회 총경회장단(박효우목사)
남가주교회 협의회(조병국목사) 오렌지 카운티 교회 협의회(박상목 목사)
벨리교회 협의회(조남민 목사) 남가주 한인 목사회(진건호목사)
남가주인양성목사회(이현옥목사) 영육회(양성근 목사) 남가주성서학회(송정명 목사) 리더십 아카데미(김영대목사) 연애키리야(지용덕 목사) 엘메이 한인회(제임스 안) 엘메이 평통(에드워드 구회장) 가주장외선교위원회(정영목사) 엘메이총영사(박경재) 한인회 총경회(서영석 장로) Face(박종대 목사) 우리방송(한기홍 목사) 미주 복음방송(이영선 목사)

교계 지도자(목사 선교사 등) 등록 신청
행사진행을 위한 준비 및 도시락(점심, 저녁) 과 선물 준비를 위해 미리 전화 신청을 받습니다
인원: 선착순 120명 회비:100불(신청자는 생명의 양식선교연구원에서 대납해드립니다)
(전화 신청:213)500-7803

인/터/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신임 총회장 오세훈 목사

질서와 은혜의 조화... 행복한 총회로

“따뜻한 밤상에 가족들이 오순도순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화목한 가정처럼 따뜻한 밤과 같은 총회장. 가족과 같은 총회가 됐으면 합니다.”

지난 5월 18일과 19일 양일간 LA에 있는 세계소망교회(담임 오세훈 목사)에서 줌을 통한 온라인과 대면 병행으로 총회를 개최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 45회 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오세훈 목사, 그는 총회장으로서 총회를 향한 마음을 밝혔다.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3번에 걸쳐 총회장에 임후보를 했었습니다. 매번 다른 분이 총회장이 되시는 모습을 보았었는데 이렇게 총회장이 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세 번의 총회장 후보시절과 총회장이 됐을 때의 마음이 남다른 것 같지 않느냐는 질문에 오세훈 목사는 강하게 동의를 표했다.

“지난 세 번의 총회장 후보였을 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가 아닌 이번에 총회장이 되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을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비교를 하려고 했는지 민망함이 밀려옵니다.”

오 목사는 “총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총회장으로서 총회를 잘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며 “만약 그 당시 총회장에 당선되었다면 많이 고맙게 생각했다. 그동안 총회와 관계하면서 교단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부총회장으로서 그리고 이번에 총회장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주님께 말씀에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셨다고 말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4-40절 말씀을 떠올려주시는 것이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이며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하나의 밀알이 되라는 것입니다. 즉 죽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는 죽

해 이끌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것이 은급부 사역과 교육부 사역을 들었다.

“작년 회기 때 결의하고 이번 총회에서 통과된 것 중 은급부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KAPC 교단은 미주한인 교단 중 가장 역사성이 깊고 규모가 큰 교단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의 복지에 해당되는 은급부 사역이 많이 미진했거든요. 이번에 PCA를 비롯한 네이팍교회들의 은퇴플랜인 RBI에 가입하는 안을 통과시켰어요. RBI는 PCA 교단의 은퇴연금 투자회사이고 PCA 목회자가 대표로 있으며, 12명의 스텝이 일하고 있는 곳입니다.

의 시간이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오세훈 목사, 그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를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저는 유교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질서를 중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초등학교 시절 동생들과 산딸기를 따러 갔는데 어디선가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찾아서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어린이학교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린이학교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것이 제가 믿음



오세훈 목사

한다. 직장생활을 하며 바쁜 삶을 살던 그는 어느 날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으며 그것이 이민자 오세훈이 아닌 이민교회 사역을 하는 오세훈 목사가 되게 했다.

“당시 집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목회자가 되

지킨다고 법을 외치면 총회가 딱딱해지고 건조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설령 법이 중요하더라도 은혜로 인해 총회가 행복해질 수 있다면 은혜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질서와 은혜의 조화가 이번 총회에서도 드러나게 된 거 같다고. 총회역사상 가장 많은 총대가 참여했으며 팬데믹 여파로 등록비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대폭 할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년간 총회 때 비행기 호텔 사용료를 제외한 등록비만 150달러였습니다. 화상회의로 모였던 작년에도 등록비는 15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팬데믹으로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등록비를 50달러로 대폭 할인했습니다. 총회에서 주는 경비도 받지 않고 노회에서 경비를 지출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후원금이 많아졌고 총회 역시 311명이 참석해 총회역사상 가장 많은 총대가 참여했습니다.”

오세훈 총회장은 폐회에배 때 ‘행복한 총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는데 총회 후 총대원들에게 ‘행복을 느낀 총회’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45회 총회는 임기가 마치는 그날까지 행복한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하나의 밀알로 희생과 섬김 ‘따뜻한 밤’ 나누도록 총회 결의내용 진행, 은급부 교육부 사역 주력

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만 죽음으로 보기보다는 희생하고 섬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집니다.”

그는 희생의 의미를 ‘따뜻한 밤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장으로 선출되고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듯이 따뜻한 밤이 되려고 합니다. 따뜻한 밤이 되는 것은 그만큼 희생과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총회는 따뜻한 밤을 나누는 가족과 같은 모임이 될 것이니까요”

제 45회 총회장으로 1년 회기동안 진행되는 KAPC 사역에 대해서 오 목사는 지난 회기 때 결의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총회의 단결과 화목을 위

현재 4,800여 교회가 가입해 있습니다.”

그는 또한 교육부 상임교육연구위원회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교리(요리)문답’을 번역해 올해 출판했다고 말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요리문답은 몇 년간 상임교육연구회에서 연구해 번역한 것입니다. 그동안 출판되어졌던 것 중에 가장 번역이 잘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사업으로 스페니쉬판 발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교재를 개발해 출판하고, 개정 및 증정성구 확인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로 사역하며 지내온 시간이 32년

갠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그 음악소리는 찬송소리였고 저는 선생님 말씀을 따라 동생들을 데리고 어린이학교에 들어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교집안이라 교회는 다니지 못했었어요. 중학생 시절 마음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 시절 다녔던 어린이학교가 생각났고 마침 십자가가 보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된 소년 오세훈은 훗날 미국이민을 떠나올 때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은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것이 목사 오세훈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신학교에 가겠다고 하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민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말한 오 목사는 자신이 목회자가 된 후 ‘아내가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더라’며 웃었다.

KAPC 신임 총회장으로 총회에 대한 바람에 대해 오세훈 목사는 “은혜와 질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총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질서가 지켜지는 총회로, 순리대로 질서 있게 운영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질서를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다니엘 9장에는 좀 더 확실하게 그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일흔이레, 일곱이레와 예순두이레). 그리고 그는 발람이 예언한 대로 메시야가 올 때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민

24:17)는 사실도 알았다. 그래서 지혜자의 대표였던 그는(다니엘 4:9에 느브갓네살왕은 다니엘을 박수장, 당시 지혜자를 박수, magicians라 불렀는데 그는 그들의 대표였다), 꼼꼼히 이를 기록하고 이를 후대의 지혜자들에게 계속 가르쳤다.

마태복음 2장에 별을 보고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했던 그들은 바로 누구였을까? 바로 그들이 다니엘의 후예였던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다니엘이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그였다. 왜 그런가? 바로 다니엘은 정체성에 충만했기에 그렇다.

누차 이야기한대로 정체성이 충만한 사람은 내가 어디서부터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명확히


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확실히 안다. 그러기에 정체성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주님의 기도 부분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는 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세요 라는 막연한 희망과 기대라고 해석한다. 천만에!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내가 사는 이 땅(지역, 가정, 사회, 이 나라, 선교지 등)에 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라는 강력한 의지의 기도이다. 내가 그런 역할을 하겠으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믿음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그를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누구를? 바로 정체성이 충만한 사람들. 바로 다니엘처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도한다.

hlee0414@gmail.com



남가주든든한교회 설립 20주년 축하감사예배

남가주든든한교회는 911이 나던 2001년, 고 김충일 목사님께서 뜻있는 분들과 함께 영혼구원의 열정을 품고 설립하여 부흥을 이루어 오던 중 2008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어 2대 담임목사로 김현인 목사가 부임하여 현재까지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21. 6. 6(주일) 오전 11시
설교: 박신욱 목사 (SEED 선교회 대표)
장소: 남가주든든한교회 (1645 Beverly Blvd. LA, CA 90026)

교역자: 김현인, 김홍철 목사, 이성자, 김금주 전도사 | 사무장: 김성훈, 김언석, 최환경, 손득수, 오영호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텀블러와 Asado 점심이 준비됩니다.